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1994. 12.

申 相 振 (國際研究室 研究委員)

全 賢 俊 (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와 구소련이 붕괴되었으나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共産黨과 軍隊라는 두개의 핵심 政治機構를 통해 사회주의체제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고 있다. 軍部로부터 政權이 창출된다는 전통이 지배하여 온 중국과 북한에서 군에 대한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는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현재 鄧小平 사후의 권력승계문제와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체제 구축문제와 관련 정치적 過渡期에 처해 있다. 과거 중국과 북한이 정치적 혼란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군부가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하에 체제안정 유지세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향후 鄧小平 사후 중국의 권력승계 과정과 김정일체제의 안정적인 구축 여부를 전망하기 위해서도 중·북한의 黨·軍關係 변화 방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중국과 북한의 당·군간 역학관계 변화 방향, 특히 權力承繼의 과도기에 군부가 어떠한 형태로 政治問題에 介入하게 될 것인지를 분석·전망하였다. 본 연구가 鄧小平 사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북한 김정일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 12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중국과 북한은 共産黨과 軍隊라는 두개의 핵심 정치기구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건국 이래 줄곧 정권을 장악해 온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 權力承繼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중국도 鄧小平의 건강 악화로 江澤民 후계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정치변혁기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本 研究은 구소련 붕괴이후에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黨·軍관계 변화 추이, 특히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의 政治介入 문제를 중점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黨·軍關係

1. 社會主義國家 政治體制의 特徵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는 理念指向性, 共産黨의 통치, 官僚支配體制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은 성립과정 시 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사상적 무기로 활용하여 왔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공산당은 배타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독점하고 집행을 감독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군은 당의 수족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사회주의국가의 실질적인 골격은 관료조직이며, 공산당과 정부 내에 자리잡고 있는 官僚機構에 의해 모든 정책이 조정되고 집행된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당조직 및 군부내 지도자 교체와 역할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2. 社會主義國家에서의 黨·軍關係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은 각종 선전·선동, 언론통제 및 정치교육 등을 통해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있다. 특히 강력하고 능률적이며 전술적으로 무장된 군대는 국가와 혁명을 옹호하고 대외적으로 혁명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바, 특히 군에 대한 통제는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어 왔다.

사회주의국가 정권 수립 초창기에는 군에 대한 당의 철저한 통제가 유지되었으나, 전문화된 장교의 등장, 정권승계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 증대,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하여 黨·軍關係에 점차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과 같은 현존 사회주의국가에서 여전히 정치가 군사에 우선한다는 기본 원칙에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3. 社會主義國家 黨·軍關係 研究모델

사회주의국가 당·군관계 비교 연구모델로서는 군의 정치참여모델, 제도충돌모델 그리고 이익조화모델 등이 제시되어 왔다. 政治參與모델은 군부 지도자들이 정치체제내에서 자신들에게 권력배분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치·군사문제 등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 당·군관계에 대한 참여모델은 특히 공산당의 統制力이 약화되고 권력승계 등 혼란기에 처한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 문제를 분석·전망하는데 유용한 연구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制度衝突모델은 공산당과 군부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적대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모델을 적용하는 학자들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군부가 공산당의 독점적 권력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사상 주입과 查察機關의 감시제도를 통해 당이 군에 대한 통제를 기도한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왔다.

利益調和모델은 공산당과 군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협력과 조화의 관계속에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익조화 모델은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의 당·군관계 연구에 적합한 연구모델로 지적되고 있다.

군부가 공산당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반대기 어려운 중국과

북한의 경우 제도충돌 모델 보다는 이익조화 모델이나 참여 모델이 더욱 적합한 연구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부의 專門化와 職業化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 공산당 중앙의 권위가 약화되고 權力承繼의 과도기에 처해 있는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 연구를 위해 참여모델이 보다 유용한 연구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中國과 北韓의 黨·軍關係 比較

1. 黨에 의한 軍 統制 구조와 방법

가. 중 국

중국에서 군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각급 부대 단위의 정치부와 당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 최고 통수기관이며, 군에 대한 당의 최고 지휘·통제기구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主席 責任制」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군사정책 결정이 중앙군사위원들간에 토의를 거쳐 주석에 의해 최종 확정된다. 총정치부는 총참모부, 총후근부와 더불어 중국군의 3대 부처의 하나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영도하에 군대에서 당의 활동과 정치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

구이다. 또한 중국은 人民解放軍내 군지휘관 이외의 정치위원이라는 이원적인 지휘체계를 인정함으로써 당에 대한 군대의 정치적 신뢰성과 충성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군에 대한 공산당의 統制方法으로서는 교조주입, 자아비판, 하방, 인사·제도 개편 그리고 정치운동 등이 활용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군에 대해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제고시키고 黨性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군 병사들에게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을 통해 당의 충성스런 전사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은 당중앙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당지도부와 대립되는 군 간부를 공장이나 농장에 파견하여 일반노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중국군 각급 장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중대급 단위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군지휘 계통의 효율을 제고하고 군에 대한 정치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중국 공산당은 군사제도 개혁과 군 간부 인사 이동을 통해 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整風運動과 雷鋒運動 등 각종 정치운동을 통해서도 군기율을 확립하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 북 한

북한에서 당에 의한 군통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조직지도부, 인민군 당위원회 및 총정치국, 사로청 및 3대혁명소조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군은 제도적으로 勞動黨에 예속되어 군사조직·군사전략 등 모든 면에서 당의 결정 및 지시·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黨에 의한 軍 統制機構 중 가장 상위기구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이다. 黨規約 제27조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의 토의 결정,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의 조직지도, 전군의 지휘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과 수령의 정책노선을 군사부문에 침투시키고 이를 통해 군을 통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黨조직지도부는 당중앙위 최고실무지도기구로서 실질적인 당 조직, 정치사업의 총참모부이다. 조직지도부는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체제의 직접담당기관으로서 이 기구의 지시에 의해 黨中央委가 움직이고 북한체제가 작동되어 왔다. 조직지도부는 각급 군정책을 결정하는 군당위원회 責任秘書를 직접 임명함으로써 군을 통제하고 있다.

軍黨委員會는 여타 당위원회처럼 각급 군단위의 업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군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직속기구로서 모든 사업을 당중앙위에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총정치국은 군당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그러나 군총정치국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당중앙위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사로청과 3대혁명소조의 정치조직에 의한 군의 통제이다. 당의곽단체인 사로청은 군내 비당원을 당지도하에 구속하기

위한 조직이며, 군 일상생활을 열성당원의 행동으로 통일시키려는 당청년부의 군내 당조직 강화책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3大革命小組는 원래 관료주의 척결, 생산성향상이라는 목적하에 창립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세습반대자들을 발견 척결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체로 변하였다. 3대혁명소조는 무기력한 군간부들을 비판하고 그 사실을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直報한다.

한편 북한은 직접적인 군 통제방법으로 첫째, 인사상의 身上必罰, 둘째, 경제적 우대 및 군사비 우선배정, 셋째, 군에 대한 보급의 우선, 당원가입의 용이, 농촌출신의 신분이동, 대학입학특혜, 넷째, 思想改造, 다섯째, 각급 부대 정치군관·각급 黨단체에 의한 감시 등을 통해 군을 통제하고 있다.

2. 軍의 政治介入 事例와 方法

가. 중 국

군부가 공산당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도 군부의 정치 개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중국에서 군부가 政治問題에 개입한 事例들을 통해서 볼 때, 군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국 초기 군 간부가 치안과 행정업무 등 정치문제를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정권 수립 초기 중국군 지도자들 대부분이 공산당 지도

자들이었다는 사실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였고, 군은 곧 공산당의 충성스런 도구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었다. 따라서 당시 군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군의 정치역할은 공산당의 명령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공산당이 일부 정치세력의 정치적 의도하에 당지도부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을 취할 경우,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1959년 廬山會議시 군부의 입장을 대표하였던 팡덕회와 당을 대표하였던 毛澤東간에 경제·군사·대소정책과 관련 마찰이 일어났으며, 이는 彭德懷와 黃克誠 등 군 지도부의 숙청을 통해 결말이 나게 되었다. 당중앙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게 된 중국군부의 정치개입은 군부가 직접 정권을 장악하려하기 보다는 당의 불합리한 정책노선을 변화시키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었다.

셋째, 지도부간 정책대립시 군대가 동원되는 경우로서 문화대혁명 당시 毛澤東과 劉少奇간의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군의 정치개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967년부터 문혁세력과 문혁 반대세력간 투쟁이 격화되고, 문혁 반대세력의 저항이 격렬해지자 毛澤東은 군을 동원하여 반대세력을 숙청하였다. 문혁당시 중국군의 정치개입은 「三支兩軍」(좌파지원, 공업지원, 농업지원,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군사훈련) 원칙하에서 이루어졌는 바, 군의 정치문제 개입은 어디까지나 毛澤東에 의해 영도되었던 당중앙의 명령과 통제하에서

가능하였다.

넷째, 최고 지도자 사망이나 대내외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경우 군부가 정치문제에 개입하여 왔다. 1976년 당주석 毛澤東이 타계한 후, 중국에서는 권력승계문제를 놓고 華國鋒, 葉劍英, 鄧小平 그리고 「4人幫」간의 권력투쟁이 전개되었다. 1차 권력승계 투쟁에서 華國鋒은 葉劍英이 영도하는 군과 汪東興이 통제하고 있었던 북경방위 부대인 「8341부대」를 동원하여 「4人幫」을 체포하고, 당주석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장악하였다. 2차 권력승계 투쟁은 鄧小平이 李先念과 군부내 자신의 지지세력의 지원을 통하여 華國鋒을 제거함으로써 종결되었다.

1989년 6월 天安門사건의 진압과정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군을 동원하였다. 중국의 지식인과 학생들이 天安門광장에서 부르조아 자유화를 부르짖고 공산당의 영도에 회의를 표시하는 등 「4항기본원칙」의 포기를 주장하였는 바, 중국 공산당은 鄧小平의 명령하에 군부대를 동원하여 학생운동을 무혈진압 하였다.

요컨대, 毛澤東 사후 華國鋒으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고, 鄧小平이 華國鋒을 제거하고 권력승계 투쟁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군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또한 天安門사건 당시 학생운동에 대한 군의 무력진압은 당중앙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다. 아울러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가 직접 권력 장악을 위해 정치에 개입하였다고 보다는 특

정 세력이나 지도자가 권력 장악을 위해 군부를 권력투쟁에 동원하였다.

나. 북 한

북한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된 역사는 군이 다양한 파벌의 난립으로 인해 야기된 힘의 공백상태에서 빨치산이 권력장악을 위해 개입하기 시작한 때 부터 였다. 북한은 1948년 2월 8일 평양에서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으로 한 인민군의 창설을 선포하였다. 물론 군의 핵심간부들 또한 최용건을 비롯한 빨치산출신들이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인민군을 주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건설 초기부터 빨치산이라는 사실상의 군이 체제의 주축이 됨으로써 軍事政權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김일성이 국가건설 초기 군부의 지지에 의해 수상이 되었으나 당권장악은 미진한 상태였고 그 결과로 그를 축출하기 위한 '종파사건'이 1956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빨치산파들의 적극적 방어정책으로 인해 김일성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빨치산파는 1961년 4차 당대회를 통해 권력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빨치산파를 비롯한 군출신들은 해방 이후 혼란을 극복, 북한체제와 김일성 정권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당·군일체의 전통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그만큼 인민군이 차

지하는 정치적 지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빨치산파들은 그들의 신장된 지위를 이용,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1960년대에 軍事優先主義 내지는 군사모험주의를 채택하였고, 1960년대 후반에 프에블로호 납치사건, 청와대기습사건, EC-121기 격추사건 등을 저지르는 군사모험주의를 실천하였다. 김일성은 이것을 계기로 빨치산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여 군부세력을 약화시키고 黨優位體制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군부에 대한 처절한 숙청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도록 하였고 어떤 경우에도 김일성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개입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김일성의 ‘숙청통치’는 많은 적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중국에서 임표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사후안전보장을 위해 세습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낳게 하였을 것이다. 김정일은 1974년 당내에서 後繼者로 내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형식적 절차이긴 하였지만 혁명1세대들의 지지를 통해 시행되었다. 임춘추를 비롯한 혁명 1세대들은 김일성의 의도를 간파하여 경쟁적으로 충성하기 위해 김정일 후계자론을 주장함과 함께 김정일의 예술적 능력과 빨치산들에 대한 충성심을 고려, 김정일후계자론을 주장하였다. 결국 김정일의 승계문제와 관련 중요한 사실은 적어도 북한의 전통적이며 유일한 정치세력인 빨치산의 지지하에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3. 政治改革과 黨·軍關係 變化 展望

가. 중 국

鄧小平 사후 중국은 대내적으로 地方分權化 문제,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에 따른 소외계층의 불만, 인플레 및 소수민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인권문제와 시장개방문제 등과 관련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鄧小平 사후 중국지도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당내 권력투쟁이 전개될 경우 공산당지배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인 바, 계파간 단결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단기간내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간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특정 정치세력이 군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러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집단지도체제하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정치군인이라기 보다는 직업군인인 혁명 이후 세대 군 지도자들은 혁명세대 군 지도자에 비해 공산당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江澤民의 권력기반의 취약성과 군부의 정치개입 문제 등으로 鄧小平 사후 중·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지도부간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江澤民은 鄧小平 사후 정국 향배

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최고 지도자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하고 있지만, 鄧小平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군부내에 파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鄧小平이 사망할 경우 정적들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鄧小平 사후의 권력투쟁 과정에 중국 군부가 스스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 사후 江澤民의 통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에서 楊尙昆과 楊白氷 또는 王瑞林 등 군부내에 강력한 세력기반을 갖고 있는 정적들이 군을 동원하여 江澤民을 제거함으로써 中華民族主義라는 명분하에 공산당의 통치를 연장할 가능성은 있다.

나. 북 한

김일성 사후 북한내 黨·軍關係는 어떤 양태를 보일 것인가? 국가건설 초기부터 북한군은 정치에 깊숙히 개입하였고 그 이유는 그것이 군의 최대이익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향후 김정일 정권이 군은 이익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정책을 구사하였을 때 군이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만일 당이나 인민이 군부이익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이 당을 파괴하고 직접통치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첫째, 당이나 국가가 급격한 개방 정책을 실시, 군의 존재이유가 약화되게 되었을 때 군은 정치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둘째, 經濟難으로 인해 인민의

붕괴가 발생했을 경우 체제유지를 위해 군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김정일로의 후계내정 직후인 1975년 오진우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발언, 김일성 사후 100일기념 중앙추모회(1994.10.16)에서 인민군총참모장 최광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 등을 고려해 볼 때, 군이 무력으로 당을 제압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군의 위상만 제고된다면 북한군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 김정일체제를 지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김정일 자신이 당의 최고책임자이면서 군의 最高責任者라는 점에서 군부의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당·군관계가 급격히 갈등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Ⅲ. 結 論

本 研究는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의 변화와 관련 군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성을 보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과 북한에 있어서 공산당과 군은 社會主義體制를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군은 공산당의 통치를 옹호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둘째, 중국과 북한에서 軍部가 직접 黨權에 도전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 군부의 정치개입은 군부 스스로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지도부의 결정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동적으로 動員됨으로써 가능하였다.

셋째, 중국과 북한의 경우 군부 최고 지도자가 당직을 겸직하게 함으로써 당·군간 마찰이 야기될 소지를 봉쇄하여 왔다. 군지도자의 당직 겸직은 강력한 물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부를 당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하였다.

넷째, 중국과 북한에서 군부는 당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施惠를 받아 왔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군부는 당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국의 당·군관계는 철저하게 당 우위에 입각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에 의해 군이 통제되었다. 둘째, 중국에서의 당·군관계는 地方分權化 추세와 관련하여 지방군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군은 철저하게 中央黨과 김정일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보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군이 중앙당과 집권자의 명령에 불복하게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북한에서 나타나게 될 군부의 정치개입은 당 지도부간 權力鬭爭이 전개되어 특정 세력이 政權掌握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군이 독자적으로 당권을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目 次

第 I 章 序論	1
第 II 章 社會主義國家에서의 黨·軍關係	3
1. 社會主義國家 政治體制的 特徵	3
2. 社會主義國家에서의 黨·軍關係	5
3. 社會主義國家 黨·軍關係 研究모델	7
第 III 章 中國과 北韓의 黨·軍關係 比較	11
1. 黨에 의한 軍 統制 構造와 方法	12
가. 中國	12
나. 北韓	21
2. 軍의 政治介入 事例와 方法	39
가. 中國	40
나. 北韓	54
3. 政治改革과 黨·軍關係 變化 展望	63
가. 中國	64
나. 北韓	71
第 IV 章 結論	77

第 I 章 序 論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일 지배정당인 共産黨과 강력한 물리력을 보유하고 있는 軍部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공산당과 군부간 관계에서 군부는 철저하게 공산당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¹⁾ 그러나 공산당과 군부간에는 제도적인 이익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바, 權力承繼의 과도기 등 정치적 격변기에는 공산당과 군부간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과 군부가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정치적 過渡期 공산당과 군부간의 관계변화에 대한 논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장래를 분석·전망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과 군부간의 역학관계 변화와 군부에 대한 공산당의 효율적인 통제 여부, 그리고 군부의 정치문제에 대한 개입 정도 등은 사회주의국가의 政治體制 變化 방향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몇 안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산당과 군대라는 두개의 핵심 政治機構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건국이래 줄곧 정권을 장악해 온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 權力承繼 작업을

1) Eberhard Sandschneider, "Military and Politics in The PRC," June Teufel Dreyer, *Chinese Defence and Foreign Policy* (New York: Paragon House, 1989), pp. 332~37.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중국도 1978년이래 개혁·개방정책의 총설계역을 담당해 왔던 鄧小平의 건강 악화로 江澤民 후계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정치변혁기에 놓여 있다.

1960년대 文化大革命시기와 1976년 毛澤東사망 직후 그리고 1989년 天安門事件 등 정치 변혁기에 중국 군부는 공산당 지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북한에서도 노동당에 대한 군부의 확고부동한 충성이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이들 두 나라에서 유일 지배정당인 공산당과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군부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방향을 전망하는데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구소련 붕괴이후에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 변화 추이, 특히 권력(승계)투쟁 과정에서의 군부의 정치개입 문제를 중점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第 II 章 社會主義國家에서의 黨·軍關係

1. 社會主義國家 政治體制의 特徵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는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는 理念指向性을 강하게 띠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은 성립과정시 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사상적 무기로 활용하여 왔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理論的 道具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구소련이 직접 이식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 이외의 사회주의국가가 신봉하는 이념은 순수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경우에는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 혁명을 수행할 객관적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각자 현실에 맞게 대폭 변화시켜 왔다.²⁾ 그러나 중국과 북한 사회주의체제도 기본적으로는 통치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는 유일 지배정당인 共產黨이 統治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당·국가체

2)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리를 중국 혁명의 객관적 현실에 부합되게 한 것이 毛澤東思想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더 이상 모든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 編, 「毛澤東哲學思想概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3), pp. 1~18; “理論與實際,” 「人民日報」, 1984. 12. 10.

제라고 지칭되어 왔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의 역할이 기타 다른 모든 정치기구의 역할 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바, 공산당이 정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³⁾ 공산당은 배타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독점하고 집행을 감독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국가위에 군림하고 행정부와 군은 당의 수족과 다를 바 없다.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에서 공산당은 서방의 지배정당과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며, 「超支配政黨」(predominant party)이라고 할 수 있다.⁴⁾

셋째,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는 官僚支配體制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실질적인 골격은 관료조직이며, 공산당과 정부내에 자리잡고 있는 관료기구에 의해 모든 정책이 조정되고 집행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계급노선이나 대중노선에 입각한 체제 운영 보다 실질적으로는 당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관료계급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관료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당조직 및 군부내 지도자 교체와 역할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3) Giovanni Sartory,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of Analysi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 230.

4) Maurice Duverger, *Political Party*, Babara and Robert North (trans.) (London: Methuen & Co. Ltd, 1978), pp. 89~95.

2. 社會主義國家에서의 黨·軍關係

사회주의국가에서 공산당은 「超支配政黨」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바, 공산당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공산당의 역할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며, 각종 선전·선동, 언론통제 및 정치교육 등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력하고 능률적이며 전술적으로 무장된 군대는 국가와 혁명을 옹호하고 대외적으로 혁명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바, 특히 군에 대한 통제는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군부가 갖고 있는 물리력을 감안할 때, 군부는 국내정치에서 공산당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군은 공산당 지도부에서 이탈하여 政治權力을 교체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에서 공산당은 군에 대해 완전한 統制力을 갖기 위해 소대 규모에까지 政治委員制度를 도입하고 군간부에 대한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군은 철저하게 공산당에 예속되어 왔다. 그리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구소련과 중국에서는 군대내에 당조직을 구성하고, 각급 부대단위에 정치위원 제도를 두어 군부가 정치세력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왔다. 군부내에 배치된 정치위원들은 군

인들의 정치사상 교육을 담당하고 군인들을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부내 대부분의 장교들이 공산당원중에서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군부는 공산당의 지도와 명령에 익숙해 있다. 또한 북한체제내에서도 노동당 조직을 통하여 군부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바, 군은 단지 당의 하부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⁵⁾

사회주의국가 정권 수립 초창기에는 군에 대한 당의 철저한 통제가 유지되었으나, 전문화된 장교의 등장, 정권승계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 증대,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하여 黨·軍關係에 점차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제한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당 군관계가 당에 대한 군의 종속에서 점차 조화의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⁶⁾ 군이 현대화와 정규

5) 북한에서의 당·군관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유광진, “북한의 개방정책 결정에 있어서 당·정·군의 역할,” 「國防學術論叢」, 제8집, pp. 5~68; 이정수, “북한의 당·군관계,” 「北韓研究」, 1992년 가을호, pp. 42~43 등 참조.

6) 이와 관련, 지난 1989년 천안사건 당시 중국군이 당의 보호자로서 보다는 국가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실에서 잘 나타난 바 있다. 당시 군대는 당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운동을 진압하였다기 보다는 질서와 법을 회복하여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병준, “중국개혁정치와 당·정·군관계,” 안병준 등, 「中國의 政治體制와 改革」(서울: 법문사, 1992), pp. 28~29; Feng Shengbao, “Party and Army in Chinese Politics—Neither Alliance nor Opposition,” Zhiling Lin and Thomas W. Robinson, ed., *The Chinese and Their Future* (Washington, D.C.: The AEI Press, 1994), pp. 58~81.

화를 강조할 수록 군은 당의 군대로서 보다는 국가의 군대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고, 당과 군부간 관계가 통제와 복종의 관계에서 협력과 조화의 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과 같은 현존 사회주의국가에서 여전히 정치가 군사에 우선한다는 기본 원칙에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과 북한 등 현존 사회주의국가에서 공산당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군부를 통제하고 있다.⁸⁾

3. 社會主義國家 黨·軍關係 研究모델

사회주의국가 黨·軍關係를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주로 군의 政治參與 문제, 당·군간 衝突問題 그리고 당·군간 協力問題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군부의 정치참여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군부와 민간 엘리트간에 어느 편도 절대적인 지배권력을 갖지 않으나 양자가 공산당의 주도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상호작용

7) 李達, “중공에 있어서 당·군관계,” 「共產圈論叢」, 창간호 (1988), pp. 126~34.

8) 중국의 경우 공산당의 군 통제는 ① 당중앙위원회의 통수와 군 정 양면에 걸친 지도, ② 군내 정치위원제도에 의한 계통적인 직접 지도, ③ 군내 당 조직에 의한 장병의 장악 등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군내 정치위원제도에 의한 군부 통제문제에 대해서는 Cheng Hsiao-shih, *Party-Military Relations in the PRC and Taiwan* (Boulder: Westview Press, 1990) 참조.

한다는 견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군부내 지도자들은 정치체제내에서 자신들에게 권력배분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치·군사문제 등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군관계를 군부의 政治參與 문제에 중점을 두는 「參與모델」(participation model)은 콜튼과 조페 등 학자들에 의해 적용되어져 왔다.⁹⁾

사회주의국가 당·군관계에 대한 참여모델은 특히 공산당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權力承繼 등 혼란기에 처한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 문제를 분석·전망하는데 유용한 연구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국가의 최고 지도자 교체과정에서 군부가 어떠한 역할을 행사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에는 참여모델이 적절한 분석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콜코비츠와 같은 학자들은 공산당과 군부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적대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적대관계는 국가의 정치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당 군관계를 분석하여 왔다. 이러한 「制度衝突 모델」(institutional conflict model)을 적용해 온 학자들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군부가 공산당의 통제를 둔화시키고 군부의 직업적 자율권 확보와 방대한 국가예산 획득을 기도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당

9) Timothy Colton, "The Party-Military Connection: A Participatory Model," Dale Herspring, ed.,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Systems* (Boulder: Westview Press, 1978), pp. 53~78; Ellis Joffe, *The Chinese Army After MAO*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등 참조.

은 군을 공산당의 독점적 권력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세력으로 보고 정치사상 주입과 정보기관과 경찰 등 사찰기관의 감시제도를 통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기도한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왔다.¹⁰⁾

오덤과 같은 학자들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공산당과 군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協力과 調和의 관계속에서 기능한다는 관점에서 「이익조화 모델」(interest congruence model)을 적용하여 왔다.¹¹⁾ 이익조화 모델에 의해서 사회주의국가의 당·군관계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군부 지도자들이 국가 대의의 수호자로서 공산당 지도부에 충성할 것에 동의하고 공산당의 정책을 실천하는 세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익조화 모델은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의 당·군관계 연구에 적합한 연구모델로 지적되고 있다.¹²⁾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세가지의 연구모델이 모두 적용될 수 있겠으나, 군부가 공산당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반대가 어려운 중국과 북한의 경우 제도충돌 모델 보다는 이익조화 모델이나 참여모델이 더욱

10) Roman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11) William E. Odom, "The Party-Military Connection: A Critique," Dale Herspring, ed., op. cit., pp. 25~52.

12) Suck-ho Le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89), p. 38.

적합한 연구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³⁾ 그러나 군부의 專門化와 職業化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地方分權化 정책에 의해 공산당 중앙의 권위가 약화되고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처해 있는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 연구를 위해 참여모델이 유용한 연구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⁴⁾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권력승계문제에 직면해 있는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를 참여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과 북한의 당 군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당과 군간의 力學關係, 군의 政治參與 동기와 과정 그리고 權力承繼 과정에서 군의 역할 등에 대한 패턴을 찾아내고자 한다.

13) 그러나 1959년 廬山會議시 군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彭德懷와 당의 이익을 대표하는 毛澤東간의 충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조화 모델 보다는 제도충돌 모델과 참여모델이 보다 적절한 연구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모델, 제도충돌 모델, 그리고 이익조화 모델을 적용하여 중국과 구소련의 당 군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Yang Zho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Changing Communist Societies: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24, no. 1 (March 1991), pp. 77~102 참조.

14) 한편 중국 군내에는 派閥이 존재하고 있으며, 군의 정치개입이 특정 派黨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당·군관계 연구에는 派閥政治 모델이 유용한 분석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第 III 章 中國과 北韓의 黨·軍關係 比較

192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中國革命運動 당시부터 중국에서는 공산당 지도자들 대부분이 軍指揮官 또는 軍政治委員을 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산당과 군부간에 구조적으로 유지되어 온 긴밀한 관계는 현재까지도 중국 정치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북한 勞動黨에 대한 북한 군부의 절대적인 충성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가장 커다란 자산이 되어 왔다.

중국과 북한 정치체제에서 공산당과 군부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세력으로 기능하여 왔는 바, 공산당과 군부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군부의 정치개입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黨·軍關係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개혁정책과 權力承繼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 군의 정치역할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며, 공산당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부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에도 어떠한 변화가 야기될 것인지를 전망하기로 한다.

1. 黨에 의한 軍 統制 構造와 方法

가. 中 國

(1) 黨에 의한 軍 統制 構造

중국에서 공산당에 의한 군 통제는 民主集中制와 더불어 중국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중요한 조직원칙으로 간주되어 왔다. 중국은 총구(군부)로부터 정권이 창출되지만 공산당이 군부를 지휘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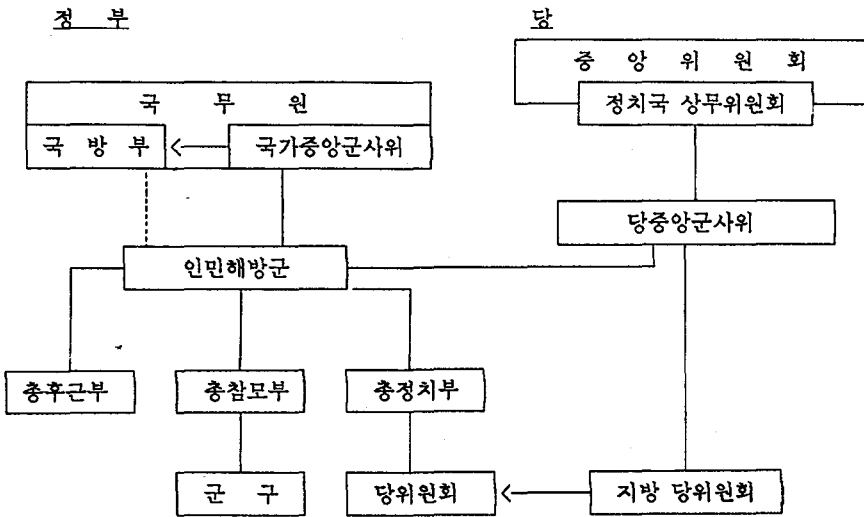
특히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 창군 당시 중국군은 대부분 노동자와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내 군사 전문가가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1927년 중국군 창설 당시 중국군 지휘관들 대부분이 당지도자들이었다. 또한 毛澤東이 혁명전쟁에서 武器보다 人間의 정신력이 결정적 요소라고 인식하여 중국군의 思想改造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군부대의 군사훈련과 정치통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왔으며, 현재까지도 군에 대한 당의 통제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에서 군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는 黨中央軍事委員會, 人民解放軍 총정치부, 각급 부대 단위의 정치부와 당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들 기구의 기능을 검토함

15) 毛澤東은 1938년 군부가 당을 지휘해서는 안되고 당이 군대를 지휘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毛澤東, “戰爭與戰略問題,” 「毛澤東選集」, 第2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6), p. 512.

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군통제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현재 중국 공산당의 군부 통제체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중국의 당·군관계 구조



* 1983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인민해방군은 당 중앙 군사위원회의 직접 통제하에 있었음.

— 직접 명령계통 간접 명령계통

출처: Cheng Hsiao-shih, *Party-Military Relations in the PRC and Taiwan* (Boulder: Westview Press, 1990), p. 47.

(가) 黨中央軍事委員會

중국 헌법 규정에 의하면 國家主席이 중국군의 최고 지휘관이다. 그러나 실지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국군 창군 이래 주요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예산, 훈련 및 지휘문제를 결정해 왔다.¹⁶⁾ 1983년 6월 중국군을 黨軍에서 國家軍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를 신설하였지만, 실지로는 당 중앙군사위원들이 국가 중앙군사위원을 겸임하고 있어서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는 본질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자체에 불과하였다. 중국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 최고 통수기관이며, 군에 대한 당의 최고 지휘·통제기구이다. 중국 공산당 규약 제23조에서도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 최고 지휘기관으로서 군부내 당조직을 장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및 黨·軍問題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政治工作과 교육에 관한 지시, 군사훈련 규칙 제정, 군사관련 법규 제정, 군 보수 규칙 승인 및 전투규칙 집행 등 모든 중요한 군사활동을 명령하고 감독한다. 이와 같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은 당이 군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부여된 것이다.

중국 군에 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력은 당 중앙군

16) Harvey W. Nelsen, *The Chinese Military System: An Organizational System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1), pp. 45~49.

사위원의 면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단은 江澤民 주석, 劉華清 상무 부주석, 張震 부주석, 遲浩田 국방부장, 張萬年 총참모장, 于永波 총정치부 주임, 傅全有 총후군부 주임 등이다. 당 중앙군사위원들 모두가 중국군 현직 최고 지휘관들이라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중국군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소위 「주석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중요한 군사정책 결정이 중앙군사위원들간에 토의를 거쳐 주석에 의해 최종 확정된다.¹⁷⁾ 따라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총정치부를 통해서 군부를 통제한다고 하기 보다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방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직접 통제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군부에 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통제력을 감안해 볼 때에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중국군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사상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毛澤東, 華國鋒, 鄧小平, 江澤民 등 4명에 불과하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장악하였던 이들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당과 정부 부문에서도 실권을 행사하게 되어 중국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군림하였다. 제3세대 지도부에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권력승

17) Cheng Hsiao-shih, op, cit., p. 49.

계를 제도화 하고자 하였던 鄧小平이 마지막까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1980년대 鄧小平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胡耀邦과 趙紫陽이 결국 숙청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그들이 군부를 장악할 수 없었다는데 있었다.

(나) 總政治部

총정치부는 總參謀部, 總後勤部와 더불어 중국군의 3대 부처의 하나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사업조례에 의하면, 총정치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치사업 기관으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영도하에 군대에서 당의 활동과 정치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군 총정치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하에 군부에서 당의 이념 및 조직상의 임무를 수행하며, 총정치부의 활동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총정치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하부 기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총정치부는 중국군내 일체의 政治工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바,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 총정치부는 당의 노선·방침·정책과 헌법과 법률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를 집행하고 군의 정치·교육·문화·이념공작을 수행한다. 또한 총정치부는 군사훈련에 관한 정치사업을 지도하며, 군의 이념건설과 조직건설 지시, 「解放軍報」 등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잡지 발행, 전군인의 복지관리 등을 담당한다.¹⁸⁾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정치부는 조직부, 선전부, 문화부, 간부관리부, 정치보위부, 비밀위원회 등을 하부기관으로 두고 있다. 총정치부의 각종 지시와 명령은 이들 하부기관과 당위원회를 통해 각급 군구와 군단위에 전달된다. 중국군 중대급 이상의 군단위에 공산당 지부를 두고 있는 바, 총정치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와 명령을 중대 단위까지 하달하고 감독한다.

(다) 政治委員과 黨委員會

중국군의 政治委員 제도는 몇차례의 변화를 겪어 왔으나,¹⁹⁾ 군에 대한 통제 기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정치위원회는 당기구로서 조직상으로 볼 때 군의 명령계통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상급 당기관에서 하달된 명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치위원회의 결정은 군 지휘관을 구속·통제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그림 1)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군내의 정치위원회는 聯隊級 이상의 당위원회와 縣과 市の 당지부에 의해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한편, 연대급 이상 단위에 두고 있는 당위원회의 장은 정치위원으로 지칭되며, 대대와 중대 단위에는 정치교관과 정치

18) 총정치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中國人民解放軍 政治事業條例,” 黃炳茂, 「新中國軍事論」(서울: 法文社, 1992), pp. 595~97 참조.

19) Cheng Hsiao-shih, op, cit., pp. 26~35.

장교가 배속되어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내 군지휘관 이외의 정치위원이라는 이원적인 지휘체계 인정은 당에 대한 군대의 정치적 신뢰성과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에서 군대내 중요한 문제는 모두 당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결정하며, 군사업무에 속하는 문제는 군지휘관이 책임지고 실시하며, 정치업무에 속하는 문제는 정치위원의 책임하에 실시된다. 또한 군사 지휘관과 정치위원은 당위원회의 지도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²⁰⁾

(2) 黨에 의한 軍統制 方法

중국군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방법으로서 교조주입, 자아비판, 하방, 인사·제도 개편 그리고 정치운동 등이 활용되고 있다.

(가) 教條注入

중국 공산당은 교조주입을 통해 중국군을 애국적인 공산주의 이념으로 물들게 함으로써 당의 이익과 정책에 충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교조주입을 통해 인민해방군을 훌륭한 공산주의 戰士로 개조하여 왔다.²¹⁾ 중국군 일상생활의

20) “中國人民解放軍政治事業條例,” pp. 597~98.

21) Alexander George, *The Chinese Communist Army in Action: The Korean War and Its Afterma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pp. 31~32.

많은 부분이 毛澤東사상 학습에 할애되고 「解放軍報」와 같은 군 발행물들도 군에 대한 정치교육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군에 대한 교조주입은 주로 군 간부 보다는 하급 장교와 사병에게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개혁·개방 정책 심화에 따라 군이 전투력 향상보다는 생산활동에 전념하게 되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黨性이 약화되자 중국 공산당은 군에 대한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²⁾

(나) 自我批判

군에 대한 당의 정치통제의 방법으로서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이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군에 대한 통제방법은 주로 소규모 군집단의 교조주입과 교화를 위한 방편으로서 채택되는 것으로서 당에 대한 군 병사의 죄악을 고백하고, 다른 군 병사들에게 당의 충성스런 전사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 중국군내에서 이러한 자아비판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다) 下 放

下放도 중국군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 방법의 하나로 이용되어져 왔다. 하방은 사병 보다는 군 간부의 그릇된 관념을 일소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으로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22) 冷眸, “三軍總部表態維護江權威,江澤民全力整頓槍桿子,” 「廣角鏡」, 1994年 11月號, pp. 6~9.

당중앙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당지도부와 대립되는 군 간부를 공장이나 농장에 파견하여 일반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법과 중국군 각급 장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중대급 단위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방운동은 군 장교와 사병간의 간격을 해소함으로써 군지휘 계통의 효율을 제고하고 숙청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정치통제와 整風의 수단으로서도 활용되었다.

(라) 制度改革과 人事異動

중국 공산당은 군사제도 개혁과 군 간부 인사 이동을 통해서도 군을 통제하고 있다. 1983년 중국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을 본연의 군사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정치문제에 대한 개입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은 군간부의 4화정책을 통해 군원로들을 물러나게 하고 젊고 전문화된 군을 양성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군 간부를 한 보직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령관으로 하여금 군내에 파벌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마) 政治運動

중국 공산당은 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각종 정치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중국에서 군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정치운동은 1957년이래 계속되어 왔다. 1957년 중국군은 군에

대한 당의 영향력 감소를 주장하고, 毛澤東의 군사건설 정책을 정면 반대하였는 바, 중국 공산당은 정풍운동과 毛澤東사상학습 운동을 통해 군에 대한 정치통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1966년부터 1976년 동안 문화대혁명 당시에도 중국 공산당은 소위 「三支兩軍」운동을 전개하여 군이 당의 혁명운동을 지원할 것을 역설하는 등 정치운동을 지속하였다.²³⁾ 최근에도 중국 공산당은 「雷鋒運動」 등을 통해 군기울 강화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군대 기충건설을 강조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 강화를 강구하고 있다.²⁴⁾

나. 北 韓

(1) 黨에 의한 軍統制 構造

김일성은 해방 후 政權創出初期 부터 政權安定 時期까지 연안파를 비롯한 타파벌과 처절히 투쟁하였다.²⁵⁾ 김일성은 그와 항일무장투쟁을 같이 했던 빨치산파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투쟁에서 승리하였고 이 때문에 빨치산파들에 대한 정

23) 三支兩軍 운동은 좌파지지, 농민지지, 노동자지지,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군사훈련 등을 강조한 것이었으며, 1967년 3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中國人民解放軍政治學院黨史教研室, 「中共黨史主要事件簡介, 1949-1981」(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2), pp. 195~96.

24) 冷眸, 앞의 글, p. 8.

25) 그러나 서대숙교수는 김일성 정적들이 대단한 힘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즉 그는 1946년경에 이미 무정, 김두봉 등이 김일성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Suh Dae Sook, *Kim Il Su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78.

치적 배려를 할 수 밖에 없었다.²⁶⁾ 그러나 빨치산파들에 대한 예우는 軍勢力의 肥大化와 政治參與 增加를 초래하였고 김일성은 군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수차에 걸쳐 군숙청을 단행하는 한편, 군에 대한 制度的 統制 裝置를 확대하였다.

물론 종파척결이후 군에 대한 통제는 빨치산파의 '頭領'인 김일성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였지만 군규모의 확대로 인해 조직과 제도에 의한 군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보다 증대되었다. 특히 군출신이 아닌 김정일이 世襲後繼者가 됨에 따라 군통제에 대한 필요성은 보다 증대되었고 그 결과 북한은 당에 의한 다양한 군통제장치를 보유하게 되었다.

(가) 당중앙군사위원회

북한군은 제도적으로 노동당에 예속되어 軍事組織·軍事戰略 등 모든 면에서 당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제46조는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임을 밝히고 있는 바, 이것은 북한군이 국가가 아닌 노동당의 군대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규정이다.

당에 의한 군통제기구 중 가장 상위기구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철저히 당우위국가이기 때문에 군

26) 서대숙 교수는 빨치산파를 약 140여명으로 보고 있다. Suh Dae Sook, *Kim Il Sung*, pp. 325~29. 김갑철 교수는 이들을 '戰友'집단이라 불렀다. 金甲喆 外, 「北韓學概論」(서울: 文佑社, 1990), p. 122.

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기구는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부터 김일성이 제시한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한 결과 신설되었다.

당규약 제27조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첫째, 黨軍事政策을 立案하는 역할을 한다. 당군사정책은 주체사상의 확립과 김일성부자세습체제를 보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당군사정책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군사부문에 구현시키는 데 그 초점이 맞춰진다. 둘째, 인민군을 포함한 全武裝力의 強化 역할을 한다. 무장력 강화는 부자세습체제 및 당이념 구현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당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오늘날 북한은 100만명 정도의 정규군과 「노농적위대」 등 500여만명의 준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다.²⁷⁾ 셋째, 軍需産業發展을 組織指導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은 군사력에 의한 무력통일을 위해 군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왔다. 물론 이로 인해 인민경제는 피폐하게 되었지만 미사일을 수출할 정도로 군수산업이 발달하였다.

오늘날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과 수령의 정책노선을 군사

27) 북한군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통일원, 「통일백서(1993)」, pp. 214~17 참조.

부문에 침투시키고 인민군을 수령의 군대로 育成 統制하는 中樞的 役割을 수행한다.

(나) 당조직지도부

당조직지도부는 당중앙위원회 最高實務指導機構로서 실질적인 당 조직, 정치사업의 총참모부이다. 조직지도부는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체제의 직접담당기관으로서 이 기구의 지시에 의해 당중앙위가 움직이고 북한체제가 작동되어 왔다. 따라서 당조직지도부의 권한은 당중앙위내에서도 가장 막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서는 1~13과까지 나뉘어져 있고 각 과가 국가의 주요 부서를 맡아 감시·통제·인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9, 10, 13과는 강제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검열기구, 군 등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최후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지도부는 각급 군정책을 결정하는 군당위원회 책임비서를 직접 임명함으로써 군을 통제하고 있다. 당조직지도부로 통합되는 군관련 정보는 「3선통보체계」를 통하는 바, 그것들은 당조직계통(정치부)·참모부계통·군대보위부계통이다. 이로 인해 김정일은 전군의 모든 단위들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각기 상이한 보고체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²⁸⁾

28) 자세한 분석은 全賢俊, 「金正日 리더십 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pp. 35~52 참조.

(다) 軍당위원회와 軍총정치국

당규약 제47조는 “조선인민군대내의 각급단위에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도(직할시)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당위원회는 여타 당위원회처럼 各級 軍單位의 업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당규약에 명시된 군당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사상교양 강화, 둘째,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통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분자 양성, 셋째, 「사로청」에 대한 지도, 넷째,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활성화, 다섯째, 군상하간, 군민간 유대강화 등이다. 그리고 군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直屬 機構로서 모든 사업을 당중앙위에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당규약 51조에는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해당단위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군총정치국은 군당위원회의 執行機關이라는 점이다. 당규약 52조는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

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군총정치국은 당위원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이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당중앙위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군당위원회와 군총정치국이 자기 사업을 각자의 계통을 통해 당중앙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 체계 수립목적은 당에 의한 군통제 자체뿐만 아니라 軍內 黨 組織 상호간의 감시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²⁹⁾

한편 이 기구의 명칭을 인민무력부총정치국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라고 한 것은 총정치국이 인민무력부의 기관이라기 보다는 당중앙위원회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이처럼 복잡한 군통제기구가 형성되게 된 역사적 과정은 무엇인가? 해방 후 김일성은 1946년 7월 인민군의 전신인 보안간부총훈련소를 설치하여 총사령관에 최용건, 문화부사령관에 김 일, 포병부사령관에 무정을 임명하였다. 이어서 1948년 2월 북한은 공식적으로 創軍을 宣言, 군내에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문화부 사령부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에 문화부 대대장, 문화부 연대장 및 문화부 사단장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각급 부대에 있어서 군의 정치사상교육 및 통제를 담당하였고 1950년 전쟁발발 직후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29) 金鎮徹, “北韓의 黨·軍關係에 대한 研究,” 「安保研究」第19號 (서울: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 1990), p. 162.

정비되었다.³⁰⁾

김일성은 1950년 10월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인민군대는 우리 당에 의하여 창건된 혁명적무장력으로서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군대는 오직 조선로동당에 의해서만 령도되어야 하며 인민군대내에는 우리 당 조직외에 그 어떤 다른 당 조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군부대들에 당단체를 내오고 정치관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개편하고 각급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며 구분대와 부대들에 정치부 부대장, 구분대장 직제를 내와야 하겠습니다. 중대에는 당세포를 내오고 대대에는 대대당위원회,련대에는 련대당위원회를 내오며 당단체들에 대한 지도는 해당 정치기관에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단과 군단, 총정치국에는 당조직문제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비상설위원회를 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³¹⁾

김일성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당의 이름을 사용, 군대내의 반대파들을 牽制하고 除去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김일성이 전쟁

30) 李基鐸, “北韓의 軍事政策과 政治,” 李基鐸 外, 「北韓軍事政策論」(서울: 京南大學校極東問題研究所, 1983), pp. 9~14.

31)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48.

중에 빨치산파가 아닌 장군들이 최고사령관인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임의로 행동, 전선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³²⁾ 따라서 김일성은 객관적 기구인 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척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일성의 당체계 강조는 당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물론 김일성의 지시는 전시중이었으므로 즉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戰後 북한은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복구에 국력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복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이한 발전 노선들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당내 및 군내의 각파별간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6년 ‘8월종파 사건’³³⁾은 빨치산파를 위기로 몰아넣는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타파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는 한편, 타파벌과 연계된 군세력 약화를 위해 1961년 4차당대회를 계기로 군정치국을 보다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 9월 16일 제4차 당대회에서 수정·채택된 노동당 규약은 “군내의 당사업을 조직집행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급제대

32) 김일성은 “지난 전쟁행정에서 ...일부군인들은 일시적인 난관앞에 굴복하여 승리의 신심을 잃고 동요하였습니다. 군대내에 무규률적이며 무질서한 현상들이 존재하였으며 일부 부대장들과 군관들은 명령과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여 명령체통이 잘 서지 않았음을 질책하였다.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위의 책, p. 146.

33) 자세한 내용은 Suh Dae Sook, *Kim Il Sung*, pp. 149~57 참조.

의 정치부는 해당단위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부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상부정치부의 지도를 받는 계서조직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정치부는 정치부지휘관으로 각급제대에 파견되는데 실제적으로 당해군의 군사지휘관이 군사적 활동면에서 책임을 지는데 대하여 정치부지휘관은 정치적 활동면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더욱 강하였다.³⁴⁾

북한은 1969년 1월 이후에는 당비서국에서 인선한 정치비서를 인민무력부로 부터 사단 및 여단급까지 배치, 군사 및 정치 등 군내 제반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하였다. 정치비서가 없는 소부대는 정치부지휘관을 지도원이라고 호칭하여 그가 임무를 수행하였다. 정치비서를 배치한 이유는 1969년 1월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창봉 일파를 축출한 것과 관련 軍內動搖를 抑制하고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사로청」과 3대혁명소조

북한군내의 또다른 정치조직은 「사로청」과 3대혁명소조이다. 사회주의로동자청년동맹(사로청)은 1964년 5월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노동당의곽단체인 「사로청」의 목적은 ‘노동당의 영도하에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보장하며

34) 李基遠, “北傀軍 그 眞相의 實體: 軍事思想과 黨軍으로서의 性格,” 「北韓」(서울: 北韓研究所, 1979.4), pp. 55~56.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로청」 가입 자격은 만 14세 부터 만 30세까지의 청년으로서 동맹 강령과 규약을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사로청」은 행정 및 생산단위로 조직되는데 「사로청」중앙위원회, 시(구역)·군위원회와 각 직장·공장·기업소·군대·학교 등에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사로청」의 군내조직은 동맹규약 제7장에 의하면 군내의 당조직체계와 같으며 각급조직들은 당조직 및 정치기관 조직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로청」이 노동당 외곽단체로서 철저히 당노선을 관철하는 전위대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군인의 의무준수와 함께 당노선의 충실한 이행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 즉 만일 「사로청」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곧 당정책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결국, 군내 「사로청」조직은 군내 비당원을 당지도하에 구속하기 위한 조직이며, 군 일상생활을 열성당원의 행동으로 통일시키려는 당청년부의 군내 당조직 강화책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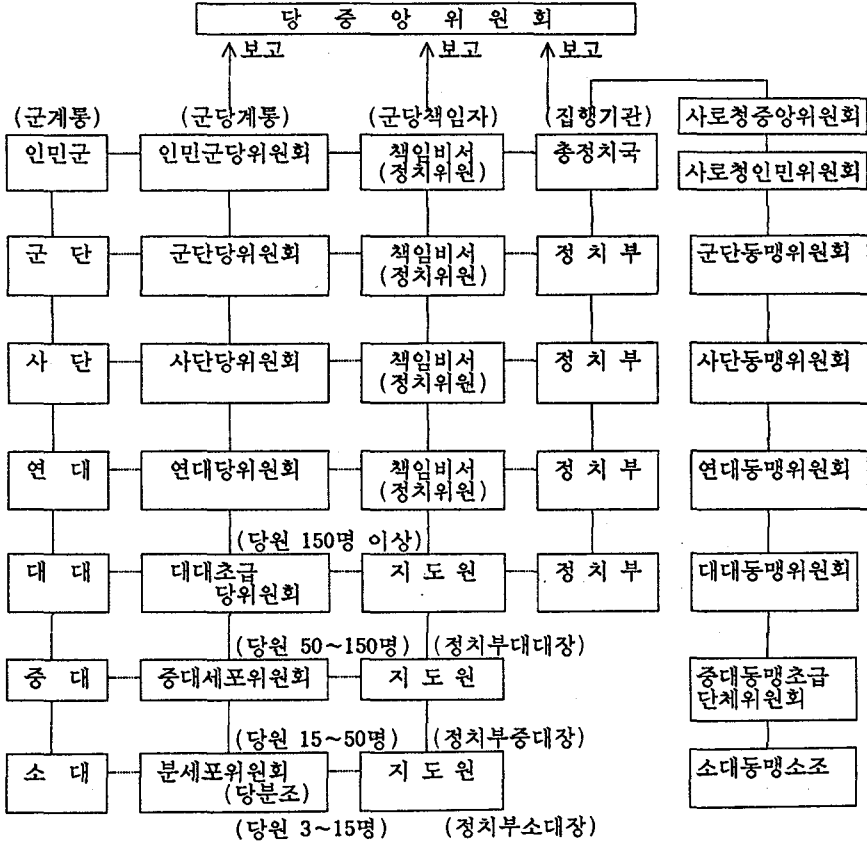
한편, 3대혁명소조는 원래 관료주의 척결, 생산성향상이라는 목적하에 창립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세습반대자들을 발견

35)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서울: 嘉南社, 1984), p. 333.

척결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체로 변하였다. 일반당조직과는 별도로 중앙당 직속편제를 갖춘 3대혁명소조는 군부에도 침투해 들어 갔다. 3대혁명소조는 중대에 까지 파견되었다. 3대혁명소조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낡은 사고와 생산방식을 타파하는 임무를 띄었고 군대내에서는 사상적·육체적 훈련철저를 통한 전투력 배가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기력한 군간부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직보되어 ‘철직’이나 ‘당적지도’를 당하였다.³⁶⁾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5년 부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에 대한 당통제조직을 보면 <표 1>과 같다.

36) 3대혁명소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양호민, “3대혁명의 원류와 전개,”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1」 (서울: 한울, 1987), pp. 143~87 참조.

〈표 1〉 군내 당조직



출처: 李基鐸, “北韓의 軍事政策과 政治,” 李基鐸 外, 「北韓軍事政策論」(서울: 慶南大學校極東問題研究所, 1983), p. 23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2) 黨에 의한 軍統制 方法

(가) 人事를 통한 통제

김정일은 1974년 등장 이후 당조직지도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즉 김정일은 모든 간부문제를 조직지도부에 집중시키고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인 자신의 직접적인 지도 통제하에 간부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幹部事業體系를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간부의 선발임명의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 노동해임, 교육훈련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간부사업지도서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3선보고' 체계를 통해 들어온 군간부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비준'을 실시, 승진 또는 '철직'이나 '당적지도'를 결정한다.

대표적인 승진인사는 1985년 4월 13일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대장에서 차수로, 상장인 오극렬, 백학림, 김두남, 이을설, 주도일, 김봉을, 김광진, 이두익 등 8명을 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1992년 4월 21일 김정일 자신이 「원수」로 추대된 것과 함께 오진우를 원수로, 최광, 백학림, 김광진, 이을설, 주도일, 최인덕, 이두익, 김봉을 등을 차수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이어서 대장 16명을 포함, 664명의 장성을 승진시켰다. 또한 김정일은 1993년 7월 19일 휴전기념 40주를 맞아 6 25참전 원로군관 및 장령 99명에 대해 장성급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충성을 유도하였다.

반면 대표적인 ‘당적지도’ 사례는 최광의 경우이다. 최광은 인민군총참모장 재직시인 1969년 군사모험주의자 척결과정에서 당적지도를 당했으나 1988년 인민군총참모장에 복귀하였다. 또한 인민군총정치국장이었던 이용무는 1977년 ‘반당분자’로 몰려 당적지도를 받다가 1988년 복권되었다.³⁷⁾

한편 김정일은 군고위간부를 당직에 겸직배치함으로써 부처간 이기주의 및 그로 인한 불만을 제어해 가고 있다. 현재 군계급을 보유한 채 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김정일(정치국상무위원·당비서·당중앙군사위원, 원수), 오진우(정치국상무위원·당중앙군사위원, 원수), 최 광(정치국위원·당중앙군사위원, 차수), 김철만(정치국후보위원, 차수) 등과 약15명의 당중앙군사위원이 있다.

(나) 물질적 시혜를 통한 통제

북한군은 武裝集團이라는 점에서 당에 의해 철저히 통제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優越한 待遇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항일빨치산의 후예로서 국가수립 참여, 한국전쟁에서의 ‘승리,’ 전후 복구사업 등을 통해 사회정치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의 중요성은 높아 졌고 특히 미국 및 남한과 대결하는 구조하에서 군의 위상은 높을 수 밖에 없고

37) 「北韓總覽」(서울:北韓研究所, 1983), p. 301.

따라서 북한은 군에 대해 많은 시혜를 베풀고 있다.

첫째, 북한은 군에 대해 경제적 우대를 해주고 있다. 북한 군은 <표 2>에서 처럼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俸給과 物質的 受惠를 받고 있다.

(표 2) 임 금 현 황

(단위: 북한 원)

직 종 별		임 금	비 고
군 인	장 성 급	250~490	
	영 관 급	120~215	
	위 관 급	84~110	
사무원	부 장 급	300~350	당정부장급 이상, 특급기업소 지
	지방단위간부	100~150	배인 도간부 및 도단위책임자
	일반사무원	70	
기술자	책 임 작 업	150~200	1~2급 기업소·공장지배인 및
	5등급기술자	75~78	기사장
노동자	중 근 로 자	130	광부, 제철, 제련공장 종사자
	경 근 로 자	90	일반 기계운전자
	기 타	60~80	일반 경근로자
교 원	대 학	200~250	
	일 반	80	
기 타	의 사	120~250	*「평양사원」의 경우
	배 우	200~300	인민배우, 공훈배우 등

출처: 「北韓總覽:1983~1993」(서울: 北韓研究所, 1994), pp. 419

둘째, 북한은 경제적 낙후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처럼 인민경제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함으로써 군의 士氣를 振作시키고 있다.

<표 3> 북한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단위: 북한화 억원, %

연도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국방비		관리비	
	지출금액	비율	지출금액	비율	지출금액	비율	지출금액	비율
1980	139.8	60.5	41.7	22.2	27.5	14.6	5.1	2.7
1981	124.6	61.3	44.7	22.0	30.1	14.3	4.0	1.9
1982	138.9	62.5	46.3	20.9	32.4	14.6	4.4	2.0
1983	151.5	63.1	48.5	20.2	35.3	14.7	4.8	2.0
1984	168.4	64.4	52.1	19.9	38.2	14.6	2.8	1.1
1985	170.7	62.5	56.5	20.7	39.4	14.4	6.7	2.4
1986	180.3	63.5	57.6	20.3	40.0	14.1	6.0	2.1
1987	199.8	66.4	56.9	18.9	39.7	13.2	4.5	1.5
1988	212.4	67.1	60.2	19.0	38.6	12.2	5.4	1.7
1989	225.0	67.4	63.1	18.9	40.1	12.0	5.7	1.7
1990	240.6	67.5	67.2	18.8	43.1	12.1	5.6	1.6
1991	251.7	67.8	69.9	18.8	45.7	12.3	4.0	1.1
1992 ^P	266.8	67.5	77.3	19.6	45.8	11.6	5.1	1.3

출처: 국토통일원 자료조사실, 「북한경제통계집」(서울: 국토통일연구원, 1986) 및 통일원, 「北韓의 경제지표」(서울: 통일원, 1992)

주: p는 계획 예산안임.

셋째, 아울러 북한은 군에 대한 補給의 優先, 당원가입의 용이, 농촌출신의 군제대 후 身分移動, 대학입학우선권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군의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³⁸⁾

넷째, 북한은 물질적 시혜는 아니지만 1978년부터 군창건일을 2월 8일에서 김일성의 ‘반일혁명유격대’ 창건일(1932. 4.25)인 4월 25일로 변경, 빨치산 후예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줌으로써 충성을 유도하였고, 1982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에서 인민무력부를 정무원산하로 부터 중앙인민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함으로써 인민군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3) 사상교양을 통한 통제

당과 수령에 대한 忠誠 敎育은 군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김일성은 “군대내에 당단체와 정치기관을 조직하는 것은 인민군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고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 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투승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입니다”³⁹⁾라고 말하여 당단체 설립 목적이 인민군에 대한 사상교양을 통한 전투력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군에서의 사상교양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고취에

38) 본원 북한연구실에서 1994년 3~5월까지 실시한 귀순자 면담자료 참고.

39)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6」, p. 148.

초점이 맞춰진다. 북한은 군이 김일성 중심의 빨치산후예임을 강조하고⁴⁰⁾ 어떤 상황에서도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정일에 대해 충성해야 한다고 교육한다.⁴¹⁾ 북한은 군내의 당선 전선동부를 통해 사상교양을 실시·감독하고 있다.

(4) 감시를 통한 통제

북한군내에는 政治的인 監視網으로 각급부대 정치군관들에 의한 감시, 각급당단체들에 의한 감시, 당원상호간의 감시, 당원들에 의한 비당원들의 감시, 각급 「사로청」 단체에 의한 「사로청」원들에 대한 감시, 정치군관의 지시를 받는 중대벽보위원 소대선동원 등 정치문제 관계자에 의한 감시 등이 있다. 또한 각급부대 정치보위부와 정치보위지도원들에 의한 감시, 정치보위지도원들이 소대에 2~3명씩 배치한 비밀첩보원에 의한 감시 등이 있다.⁴²⁾

40) 김일성은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되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며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입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의 중심과업,” 「김일성저작집 6」, p. 322.

41) 김정일은 “인민군지휘간부들은 군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시켜야 합니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소유하며…”라고 말함으로써 김일성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인민군대를 무적의 대오로 더욱 강화하자(1985.4.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 255. 한편 북한군의 신병교육과정은 혁명전통학습, 공산주의사상학습, 계급교양학습, 당정책학습, 김일성교시학습 등 주로 사상학습에 치중해 있다. 「北韓總覽: 1983~1993」, p. 873.

42) 李恒九, 「北韓의 現實」, (서울: 新太陽社, 1988), pp. 154~55.

결론적으로 당에 의한 군통제 결과, 북한의 당-군관계는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葛藤보다는 合致가 더 우세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⁴³⁾

2. 軍의 政治介入 事例와 方法

일반적으로 제3세계 국가에서는 강력하게 결집된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가 정치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왔다. 군부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는 정치문제에 대해 예민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단체들이 범질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사회·경제·인종적 혼란과 지도부내 권력투쟁으로 인하여 내부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경우이다. 또한 외부의 침략에 의하여 국가주권이 침해당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존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이다. 셋째로는 과거 군부가 정치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던 역사적 사실도 군부에 의한 또 다른 정치개입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군부가 공산당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도 군부의 정치 개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중국과 북한에서 군부가 정치문제에 개입한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중국

43) 河龍出, “中國, 北韓, 베트남의 黨-軍關係,” 金達中 스칼라피노 共編, 「아시아共產主義의 持續과 變化-中國·北韓·베트남-」 (서울: 法文社, 1989), p. 267.

과 북한 군부가 정치문제에 개입하게 직접적인 동기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국 초기 군 간부가 치안과 행정업무 등 정치문제를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공산당이 일부 정치세력의 정치적 의도하에 당지도부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을 취할 경우,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즉 지도부간 권력투쟁시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군부를 동원하는 경우이다. 셋째, 지도부간 정책대립시 군대가 동원되는 경우이다. 넷째, 최고 지도자 사망이나 대내외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경우 군부가 정치문제에 개입하여 왔다. 특히 권력승계의 정치적 과도기에 특정 정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부를 동원하는 경우이다. 결국 중국과 북한 군부의 정치참여는 군부가 스스로 정치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정치세력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 中 國

(1) 國家建設과 軍의 政治介入

중국 공산당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49년까지 30년에 걸친 국민당과의 혁명투쟁을 거쳐 정권을 장악하였다. 1927년 南昌 추수폭동 이후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혁명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대를 보유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내 지도부는 소련 공산당의 혁명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노동자와 농민들의 혁명역량을 이용하여 봉건 중국을 타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혁명노선이 국민당의 무장력 앞에 실패하게 되자 毛澤東과 朱德 등 공산당 지도부는 기존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노선을 포기하고 井崗山에 농촌 혁명근거지를 구축하는 한편, 후일 인민해방군의 모태가 된 紅軍의 무장역량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⁴⁴⁾ 毛澤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강력한 무장력이 없이는 정권을 장악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는 군부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49년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중국 군은 지방의 치안확보와 인사 등 문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중국공산당 정부 수립 초기 중국내에는 제반 국가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간 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당시 중국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군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바, 군이 전투역할 뿐만 아니라, 정치역할을 수행하고 농업, 교육, 보건 등 생산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1954년 중국의 행정조직이 개편되기 이전까지 군 지휘관들이 각급 지방 행정단위의 업무를 처

44) 何沁 等 編, 「中共黨史講義」(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6), pp. 57 ~73; 俞雨霖, “共軍與中共政治: 歷史的角度,” 「東亞季刊」, 第18卷 第2期 (1986年 10月), p. 30.

리하였다.⁴⁵⁾ 또한 혁명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공산당과 군부간의 특수한 관계도 중국 군의 정치적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⁴⁶⁾ 결국 중국 정권수립 전후 중국 정치 문제에 대한 군부의 참여도가 높았던 바, 이는 중국공산당 7차 당대회시기(1945-1955년) 44명의 당중앙위원중 23명, 33명의 당중앙 후보위원중 18명이 군지휘관이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⁴⁷⁾

1949년 이전 紅軍이 국민당 정부와의 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을 당시 毛澤東, 朱德, 彭德懷 등 중국 군 지도자들 대부분은 공산당 지도자들이었다. 또한 공산당과 군이 혼연 일체가 되어 혁명투쟁에 종사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전문화된 군지도자가 등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공산당 지도자가 군 지도자를 겸할 수 밖에 없었다.

중국 정권 수립 초기 중국군 지도자들 대부분이 공산당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였고, 軍은 곧 共產黨의 충성스런 道具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었다. 따라서 당시 군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는 효과적으로 이루

45) Parris Chang, "Changing Patterns of Military Roles in Chinese Politics," William Whitson, ed., *The Military and Political Power in China in the 1970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2), p. 48.

46) 이에 대해서는 Amos Perlmutter, William M. LeoGrande,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 (December 1982), pp. 778~89 참조.

47) 俞雨霖, 앞의 글, p. 50.

어졌으며, 중국군의 정치역할은 공산당의 명령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정권수립 초기 중국군의 정치문제에 대한 참여 경험은 향후 중국군의 政治介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중국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政策對立과 軍의 政治介入

지도부간 정책대립이 군의 정치개입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는 1959년 廬山會議시 군부의 입장을 대표하였던 彭德懷와 당을 대표하였던 毛澤東간의 대립이다. 당시 毛澤東은 廬山에서 黨政治局 확대회의와 8期 8中全會를 개최하여 1958년 大躍進運動과 人民公社 이래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산하고 당초의 계획지표를 조정하는데 당의 의견을 규합하고자 하였다. 당 주석 毛澤東은 19개 문제를 제시하여 당대표들로 하여금 토론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毛澤東은 大躍進運動과 人民公社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⁴⁸⁾

그러나 당시 국방부장 彭德懷는 毛澤東의 급진 좌경정책 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공산당을 대표하였던 毛澤東과 군부의 입장을 대표하였던 彭德懷간 대립이 표출되었다. 彭德懷가 毛澤東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대약진을 둘러싼 경제정책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毛澤東이

48) 胡繩 主編, 「中國共產黨的七十年」(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1), pp. 375~79.

영도하는 당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하였다.⁴⁹⁾ 彭德懷를 위시한 군 간부들은 毛澤東의 人民公社 등 급진적인 경제발전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과 폐단이 많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彭德懷는 毛澤東의 정치강 조정책(政治掛帥)이 결국은 정부와 당에 대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하고, 조작된 자료와 과장된 주장을 유포시킴으로써 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었다고 공격하였다.

毛澤東의 군사노선에 대한 이견도 彭德懷를 중심으로 하는 군지도부와 당지도부간 대립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군 지도부는 1950년대초 한국전 참전 이후 군의 현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의 전문화와 정규화를 추구하였다.⁵⁰⁾ 그러나 군의 전문화와 현대화는 군의 직업화를 초래하고 결국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약화시킴으로써 당과의 마찰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毛澤東은 전쟁에 있어서 현대화된 「무기」보다도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군 현대화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毛澤東은 군 현대화와 정규화가 군에 대한 당의 통제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49) Richard C. Thornton, *China: A Political History, 1917-1980*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2), pp. 253~55.

50) 특히 국방부장 彭德懷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우수하고 근대화된 혁명군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대를 건설하는 우리의 목적은 제국주의자의 침략을 경계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려는데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판단하여 「인간」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군을 당에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방부장 彭德懷와 군 총참모장 黃克誠 등 군 지도부는 현대전에 적합한 장비·조직 및 전략을 구비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군의 전문화와 현대화를 경시하는 당중앙의 입장을 정면 반대하였다.

毛澤東과 彭德懷간의 對蘇政策에 대한 이견도 군부의 정치개입의 동기가 되었다. 1956년 후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이후부터 중·소간 이념적 간극이 확대되고 불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59년에 이르러서는 중 소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1959년 소련은 중국에 대한 핵기술 제공 약속을 파기하였고, 毛澤東은 소련에 대한 의존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력에 의한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대약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당중앙의 정책노선은 중국을 국제적 고립상황에 처하게 하였고, 이는 중국 군부로 하여금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彭德懷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군부는 소련과의 타협정책을 통해 국제고립을 타개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¹⁾

1959년 廬山會議에서 나타난 毛澤東과 彭德懷간의 정책대립은 결국 彭德懷와 黃克誠 등 군 지도부의 숙청을 통해 결말이 나게 되었다. 당중앙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게 된 중국군부의 정치개입은 군부가 직접 정권을 장악하려

51) 宇野重昭, 「中國共產黨史」(서울: 일월서각, 1984), p. 245.

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⁵²⁾ 彭德懷 등 군 지도부는 당의 불합리한 정책노선을 변화시키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정책결정 과정에 발언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3) 權力鬭爭과 軍의 政治介入

1966년 이래 문화대혁명 당시 毛澤東과 劉少奇간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군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졌다. 1959년 廬山會議에서 彭德懷와의 정책대립 이후 毛澤東은 국가주석과 당총서기직을 劉少奇와 鄧小平 등 소위 「走資派」에게 이양함으로써 당내 입지가 약화되었고, 실추된 당권을 만회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이라는 급진적 처방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문화대혁명 초기 毛澤東은 문예계의 整風을 통하여 반대세력을 숙청하려 하였으나,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劉少奇와 鄧小平 등이 당과 국가기구내에서 광범위한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毛澤東은 군부를 비롯한 광범위한 연합세력을 동원하여 반대세력에 대항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되었다.⁵³⁾

52) 이러한 사실은 당시 毛澤東이 彭德懷와 黃克誠 등 군 지도부를 숙청하면서 제시한 이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毛澤東은 彭德懷를 “프롤레타리아 군사노선 추종자” 그리고 “우익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였다. 中國人民解放軍政治學院黨史教研室, 앞의 책, p. 116.

53) 이와 관련, 毛澤東은 우선적으로 林彪의 군부세력과 연합하고, 周恩來, 康生, 江青 등 계 계파와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紅衛兵이라는 청년운동을 조직함으로써 당·정부·군내 반대세력 타도에 활용하였다. 홍위병은 노동자, 빈농, 혁명간부와 혁명전사의 배경을 지닌 청년에 국한되었다.

문화대혁명 초기 毛澤東을 중심으로 한 당지도부는 紅衛兵의 혁명운동을 간접 지원함으로써 劉少奇 등 집권세력에 대해 타격을 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군의 주요 역할은 「解放軍報」 등 군 선전매체를 통해 홍위병의 투쟁지침과 공격대상을 제시하는데 국한되었다. 그러나 1967년부터 문혁세력과 문혁 반대세력간 투쟁이 격화되고, 문혁 반대세력의 저항이 격렬해지자 毛澤東은 군을 본격적으로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⁵⁴⁾ 또한 毛澤東은 문혁 반대세력과의 권력투쟁 결과 나타나게 되었던 정치·사회적 혼란을 진압시키기 위해서도 군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즉, 毛澤東이 군을 문화대혁명운동에 개입시킨 것은 법과 질서의 회복과 당내 파벌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⁵⁵⁾

군의 정치참여는 중국군을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하게 하여 군내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 군부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중국 중앙 당지도부는 이러한 반대를 무마한 후 좌파를 지원하는데 군을 동원하였다.⁵⁶⁾ 국방부장 林彪 등 당

54) 汪學文, 「中共文化大革命史論」(臺北: 國際關係研究中心, 1989), pp. 205~06.

55) 胡繩 主編, 「中國共產黨的七十年」(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1), p. 436; James C.F. Wang,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An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0), pp. 16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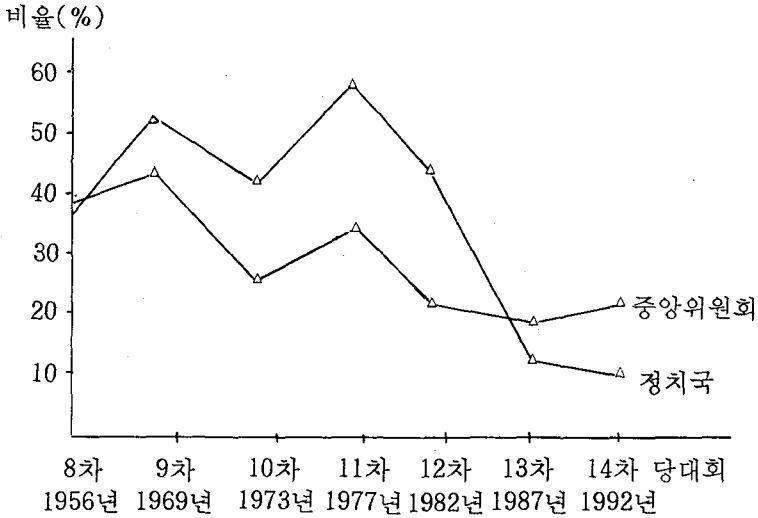
56) 특히 당중앙의 명령에 대해 지방 군부가 반발한 사건으로는 1967년의 武漢 지역군부의 항명사건을 들 수 있다. 무한사건은 홍위병이 지방당과 행정부서를 장악하여 혼란이 극심하여졌을 때, 무한지구 사령관 陳再道

중앙 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劉少奇와 鄧小平 등 문혁 반대파를 숙청한 후, 毛澤東은 24개 省과 自治區에 군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문혁과정에서 마비된 당과 행정기관의 혼란과 공백을 메우는데 활용하였다. 결국 중국 중국 군은 혁명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문혁과정에서 이완되었던 당조직 재건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⁵⁷⁾ 北京과 地方에서 최고의 정치·행정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그림 2)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대혁명이 진행중이던 1969년 개최되었던 9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과 지방 당조직내에서 군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도 중국군의 정치역할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당 중앙에서 파견한 「文革小組」 간부를 구금하고 문혁좌파를 지원하라는 당중앙의 지지를 불복한 사건이다. Thomas W. Robinson, "The Wuhan Incident: Local Strife and Provincial Rebellion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Quarterly*, no. 47 (July-September 1971), pp. 413~38.

57) James C.F. Wang, op. cit., p. 170.

(그림 2) 당중앙내 군 간부 비율



출처: 俞雨霖, “共軍與中共政治: 歷史的角度,” 「東亞季刊」, 第18卷 第2期 (1986. 10), p. 53; 王玲玲, “中共十四大人選之分析,”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1期 (1993. 1), p. 25.

그러나 문화대혁명에 대한 중국군의 개입은 군부 자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毛澤東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혁당시 중국군의 정치개입은 「三支兩軍」(좌파지원, 공업지원, 농업지원,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군사훈련) 원칙하에서 이루어졌는 바, 군의 정치문제 개입은 어디까지나 毛澤東에 의해 영도되었던 당중앙의 명령과 통제하에서 가능하였다. 문화대혁명 운동에 대한 군의 참여는 毛澤東이 당·정·군내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문혁의 과격화에 의해

파괴된 당과 정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사회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동원됨으로써 이루어졌다.

(4) 權力承繼와 軍의 政治介入

1976년 국무원 총리 周恩來와 당주석 毛澤東이 타계한 후, 중국에서는 권력승계문제를 놓고 華國鋒, 葉劍英, 鄧小平 그리고 「4人幫」간의 권력투쟁이 전개되었다. 1차 권력승계 투쟁에서 華國鋒은 葉劍英이 영도하는 군과 汪東興이 통제하고 있었던 북경방위 부대인 「8341부대」를 동원하여 江靑 등 「4인방」을 체포하고,⁵⁸⁾ 당주석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장악하였다. 2차 권력승계 투쟁은 鄧小平이 李先念과 군부내 자신의 지지세력의 지원을 통하여 華國鋒을 제거함으로써 종결되었다.

1976년 4월 毛澤東은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 華國鋒을 후계자로 내정하였으나, 문혁이래 좌파를 이끌어 온 江靑 일파와 葉劍英, 李先念, 鄧小平 등 華國鋒 보다 당내 원로계층에 속하는 정치지도자들의 견제로 華國鋒이 단독으로 실권을 장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華國鋒에 대한 공격은 江靑과 王洪文 등 「4인방」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江靑은 좌파 학생들

58) Jurgen Domes,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PRC: A Time of Transi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5), pp. 137~38. 중국군내 핵심 부대인 「8341부대」의 규모, 성격, 기능에 대해서는 康銘淑, 「四人幫事件之後」(臺北: 時報文化出版公司, 1978), pp. 51~52, 57~58 참조. 한편, 현재 북경 방위사령관은 楊德中 장군이 맡고 있다.

을 동원하여 당내 우파 제거를 주장하고 華國鋒을 진정한 毛澤東主義者가 아니라는 명목을 내세워 비판하였다.⁵⁹⁾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華國鋒은 우선 당내 江靑 반대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정권을 장악할 필요를 갖게 되어 특히 군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葉劍英 등과의 협력정책을 추구하였다. 華國鋒과 葉劍英은 許世友 휘하 南京軍區 소속 군대를 동원하여 上海의 江靑 지지세력을 체포·무장해제시키고, 汪東興이 이끄는 北京防衛 부대의 지원하에 江靑을 비롯한 「4인방」을 체포함으로써 江靑과의 권력승계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毛澤東이 사망(1976. 9. 9)한지 약 1개월이 지난 10월 7일 정치국회의에서 당주석과 당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임명됨으로써 華國鋒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⁶⁰⁾

그러나 華國鋒 정권은 당내 원로들의 견제와 정국불안으로 인하여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원래 華國鋒은 군부와 당내에서 葉劍英이나 李先念 등 당 원로 보다 강력한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毛澤東 사망이후의 권력구도가 華國鋒 일인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지배되었다기 보다는 葉劍英과 李先念 등에 의한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77년 3월 공산당 중앙공작회의시 陳

59) 「人民日報」, 1976. 10. 1; 「光明日報」, 1976. 10. 4.

60) 中國人民解放軍政治學院黨史教研室, 「中共黨史主要事件簡介」, pp. 232-234; 中華人民共和國資料手冊編輯委員會 編, 「中華人民共和國資料手冊, 1949-1985」(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86), p. 115.

雲과 王震 등 원로들이 華國鋒의 「凡是論」을 비판하고,⁶¹⁾ 鄧小平의 복권을 주장하였다. 결국 1977년 7월 10기 3중전회에서 鄧小平이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부주석, 당중앙군사위 부주석 및 군 총참모장에 복권되었다. 鄧小平의 복권은 李先念, 陳雲, 王震 등 華國鋒의 「범시론」에 반대하는 당 원로들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으며, 鄧小平은 당과 군내 자신의 지지세력을 이용하여 華國鋒체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⁶²⁾ 毛澤東 사후 지속되었던 사회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국면을 보이자 毛澤東을 철저히 부정할 경우 정치체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華國鋒에 정면 도전하기를 반대하였던 李先念 등 당 원로들도 鄧小平의 「실천론」을 지지하게 되어, 결국 鄧小平은 1978년 11기 3중전회와 1981년 11기 6중전회를 통하여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하고 자파세력인 胡耀邦을 당주석에 임명하고 자신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차지함으로써 華國鋒과의 권력승계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1989년 6월 天安門事件의 진압과정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군을 동원하였다. 天安門事件 발생 당시 중국에서는 간부의

61) 1976년 毛澤東 사망이후 華國鋒과 汪東興에 의해 주창된 「凡是論」은 毛澤東이 내린 결정을 단호히 준수해야 하고, 毛澤東이 내린 지시를 항상 추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華國鋒의 「凡是論」은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鄧小平과 陳雲의 「실천론」에 대항하기 위해 주창된 이론이었다. 金河龍, “凡是派,”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中國政治經濟事典」(서울: 민음사, 1990), pp. 160~63.

62) 鄧小平 복권과정에 대해서는 Jurgen Domes, op. cit., pp. 145~48 참조.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소비자물가가 대폭 상승하는 등 경제가 과열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는 등 중국은 대외적으로도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결국 중국에서는 지식인과 학생들이 天安門광장에서 부르조아 자유화를 부르짖고 공산당의 영도에 회의를 표시하는 등 「4항기본원칙」의 포기를 주장하였다.

당시 당총서기 趙紫陽은 학생들의 주장을 반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에 대한 당내의 이견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학생운동을 오히려 격화시키게 되었다. 당시 당중앙군사위원회중 趙紫陽, 洪學智, 遲浩田이 학생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楊尙昆과 劉華淸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결국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었던 鄧小平은 武漢에서 7대군구 사령관회의를 주재하여 군 동원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16일 당정치국 상무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5월 19일에는 당·정·군 간부회의가 열려 北京 일부 지역에 대한 계엄실시를 결의하였으며, 6월 계엄부대가 학생운동을 무혈진압 하였다.⁶³⁾

요컨대, 毛澤東 사후 華國鋒으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고, 鄧小平이 華國鋒을 제거하고 권력승계 투쟁의 최종 승자가

63) 胡繩, 앞의 책, pp. 527-531; Feng Shengbao, "Party and Military in Chinese Politics," Zhiling Lin and Thomas W. Robinson, op. cit., p. 70.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또한 天安門事件 당시 학생운동에 대한 군의 무력진압은 당 중앙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다. 권력승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타계한 후 어느 계파가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느냐가 권력승계 투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가 직접 권력 장악을 위해 정치에 개입하였다기 보다는 특정 세력이나 지도자가 권력 장악을 위해 군을 권력투쟁에 동원하였다.

나. 北 韓

(1) 國家建設과 軍의 政治介入

북한은 체제의 기원을 抗日武裝鬪爭에 두고 있다. 김일성은 1945년 8월 20일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건국의 기본토대를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습득한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에 둘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⁶⁴⁾ 김일성이 정치적 정통성의 근간을 항일빨치산 투쟁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 정권이 소련의 사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주적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둘째, 김일성만이 유일하게 항일무장투쟁경력

64)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51.

을 소유한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셋째, 남한과의 경쟁에서 북한만이 한반도내 유일정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실제로 빨치산출신들이 현재 북한정권창립의 주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 국가의 성격은 군사문화가 강하게 지배하는 군사독재국가라 할 수 있다.

파이너(Samuel Finer)는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을 동기와 기회의 두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이들 간에 어떻게 연결이 맺어지는가에 따라 군의 정치개입이 실현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파이너는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동기는 국가이익, 특정계급의 이익, 특정 지역의 이익, 군부 자체의 조직적 이익, 장교들의 개인적 이익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치개입 기회는 대외적인 면에서 외국과의 전쟁상태에 있을 때와 대내적인 면에서 국내적 위기상황 즉 명백한 위기상황, 잠재적 위기상황, 힘의 공백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을 들고 있다.⁶⁵⁾

국가건설과 관련, 북한에서 군이 개입하게된 배경과 기회는 군이 다양한 파벌의 난립으로 인해 야기된 힘의 공백상태에서 빨치산이라는 특정파벌을 위해 개입한 것이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북한군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국가건설에 참여하

65) Samuel E. Finer, *The Man on Horsesback: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 2nd ed. (Baltimore: Penguin Books, 1975), pp. 28~75.

게 되었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본다. 1945년 해방직후의 북한 상황은 각이한 계파들이 각파중심의 정권창출을 위해 경쟁을 하고 있었다.⁶⁶⁾ 각파들은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자위대와 적위대를 구성하고 무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은 1945년 10월 12일 국내의 모든 무장력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공포하였다. 소련의 이러한 조치는 김일성 이외에는 친소적 인물이 부재하였던 당시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10월 21일 자위대와 적위대는 해산되고 새롭게 保安隊가 조직되었다. 보안대는 훈련소를 필요로 하였고 1946년 6월초에 개천에 보안훈련소가 설치된 것을 필두로 신의주, 정주, 강계 등지에 제1분소, 제2분소 등이 설치되었다.

북한은 1946년 7월 인민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보안간부총훈련소’를 설치, 사령관에 최용건, 문화부사령관에 김 일, 포병부사령관에 무정을 임명하였다. 북한은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을 맞아, 평양에 빨치산파가 중심이 된 보안간부훈련대대부⁶⁷⁾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인민군의 시작이었다. 보안간부훈련대대는 인민집단군으로 발전하

66) 각 파에 대한 분류와 명단은 林 隱, 「金日成正傳」(서울: 沃村文化社, 1989), pp. 161~66 참조.

67) 이 부대는 연안파의 무정을 제외하고는 빨치산파 일색이었다.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김일평 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서울: 경남대학교국동문제연구소, 1991), p. 153.

면서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하였으며 47년 부터 48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1948년 2월 8일 평양에서 대대적인 열병식과 함께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으로 한 인민군의 창설을 선포하였다.⁶⁸⁾ 물론 군의 핵심간부들 또한 최용건을 비롯한 빨치산출신들이었다. 이 인민군을 주축으로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건설 초기부터 빨치산이라는 사실상의 군이 체제의 주축이 됨에 따라 군사정권으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일성은 무장투쟁시절의 동료 및 부하들을 주축으로 소련의 도움을 받아 인민군형성과정에서는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당내에서는 국내파를 비롯한 연안파와 소련파 등 다른 공산세력의 도전으로 처음부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⁶⁹⁾ 따라서 김일성은 정권장악 초기 여타 세력과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였다.⁷⁰⁾ 그러나 김일성은 국내에 지지세력이 거의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국외에서의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강점을 근

68) 자세한 내용은 李基鐸, “軍과 政治,” 北韓研究所, 「北韓政治論」(서울: 北韓研究所, 1979), pp. 228~34 참조.

69)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김일평 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169~70.

70) 김일성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과 농민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민주역량이 참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 p. 332. 김일성은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민주당, 청우당 등과 연합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간으로 김일성은 소련군의 庇護하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毛澤東의 경귀대로 군을 통해 당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당권장악의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김일성은 당권장악을 위해 한국전쟁 책임을 물어 연안파의 거두인 무정,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파를 숙청하였다. 물론 김일성은 1956년 까지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당권장악은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⁷¹⁾ 김일성이 당권을 완전 장악하지 못함으로써 파생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그것은 1956년 ‘8월종파사건’으로 칭해지는 김일성 축출미수사건이었다. ‘8월종파사건’의 북한 정치사적 의미는 첫째, 파벌이 완전종식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북한내에서 파벌투쟁은 발생하지 않았고 수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주체가 보다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당-군관계에서 당과 수령의 절대적 우위체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어떠한 노선논쟁도 허락되지 않았다.⁷²⁾

그러나 이 사건은 빨치산파들의 적극적 방어정책으로 인해 김일성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중요한 것은 김일성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종파사건’ 이후 빨치산파는 1961년 4차 당대회를 통해

71) 박갑동 지음, 구윤서 옮김, 「한국전쟁과 김일성」 (서울: 바람과 물결, 199), pp. 182~85.

72)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金甲喆, 「北韓의 政治이데올로기 分析」 (서울: 書香閣, 1977), pp. 100~03 참조.

〈표 4〉에서 처럼 권력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표 4〉 당중앙위원 파벌 분류

()는 %임

	1 차	2 차	3 차	4 차
김일성(K)	6	12	12	24
소련파(S)	6	13	8	1
남로파(D)	6	9	9	3
연안파(Y)	11	13	14	2
김일성파 기술관료		4	2	1
계	29	51	45	31

출처: 梁性喆, 「北韓政治論」(서울: 博英社, 1991), p. 74.

결국 빨치산파를 비롯한 군출신들은 북한체제와 김일성 정권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당·군일체의 전통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그만큼 인민군이 차지하는 정치적 지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2) 金日成 體制鞏固化와 軍의 政治介入

김일성은 정권획득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특히 위에서 고찰한 것처럼 '8월종파사건'은 빨치산파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려 주었다. 이를 계기로 빨치산파들은 당권장악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1961년 4차 당대회 부터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군출신들이 당을 장악하면서 군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⁷³⁾ 이것은 빨치산파들이 당과 군의 지위를 共有하면서 政策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重疊的 地位保有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⁷⁴⁾

한편, 빨치산파들은 그들의 신장된 지위를 이용,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구체적인 예가 1960년대 후반 프에블로호 납치사건, 청와대기습사건, EC-121기 격추사건 등을 통한 군사모험주의의 실천하였다.

김일성은 이것을 계기로 빨치산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여 군부세력을 약화시키고 黨優位體制를 確立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숙청된 자들은 허봉학, 김광협, 김창봉, 최광, 이영호, 석산, 최민철, 정병갑, 김자린, 김창덕 등이었다.⁷⁵⁾ 이후 김일성은 당권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유일사상체계확립에 정책적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군은 무장력 소유자라는 이유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했고 조그만 언행상의 실수로도 처절한 숙청을 당해야 했다.

결국 군부에 대한 처절한 숙청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도록 하였고 어떤 경우에도 김일성 권위에

73) Suh Dae Sook, *Kim Il Sung*, pp. 171~75.

74) 자세한 내용은 전현준 외, 「북한의 권력엘리트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조.

75) Suh Dae Sook, *Kim Il Sung*, pp. 239~42.

도전하는 정치개입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3) 權力承繼와 軍의 政治介入

김일성은 해방 이후 정권창출 및 유지를 위해 당·군에 대한 처절한 숙청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김일성의 ‘肅清統治’는 많은 敵을 量産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중국에서 임표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세습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임표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일성은 그의 후계자를 최소한 혁명경험을 쌓은 형제 내지는 동지로 내정하려 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실제인 김영주가 사실상 후계자역할을 하였던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임표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은 ‘빨치산 동지’나 형제들보다는 친혈육이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고 결국 그의 장자인 김정일에게로 후계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김정일은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형식적 절차이긴 하였지만 혁명1세대들의 지지를 통해 시행되었다. 임춘추를 비롯한 혁명 1세대들은 김일성의 의도를 간파하여 경쟁적으로 충성하기 위해 김정일 후계자론을 주장함과 함께 김정일의 예술적 능력과 빨치산들에 대한 충성심을 고려하여 김정일후계자론을 주장하였다.⁷⁶⁾ 후계자

76)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1989), p. 75.

내정 이후인 1975년 임춘추는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업을 완성시켜가는 전투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킨다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 의무이다”⁷⁷⁾라고 말하였다.

빨치산들이 김정일을 후계자지명에 동조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첫째, 김일성은 이때 이미 파벌을 일소하고 수령체계를 확립한 이후였다. 따라서 김일성 노선과 후계구상에 대한 도전은 곧 생명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둘째, 군으로서도 김정일이 항일무장투쟁을 부정하지 않고 군의 이익을 축소하지 않는 한, 대세를 추종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정일의 승계문제와 관련 중요한 사실은 적어도 북한의 전통적이며 유일한 정치세력인 빨치산의 지지하에 출발하였다는 점이다.⁷⁸⁾

물론 김정일의 승계문제에 대해 빨치산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김정일 후계결정 이후 이에 대해 군사력 동원이 아닌 사적 기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빨치산들이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남일(부총리), 김동규(부주석), 지경수(총장, 정부호위국 부국장), 지병학(상장,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었다. 이들은 사고사 내지는 자연사로

77) 「근로자」, 1975. 10월호.

78) 李基鐸, “北韓의 軍事政策과 政治,” 李基鐸 外, 「北韓軍事政策論」, p. 37.

위장되어 사망하였다.⁷⁹⁾

김정일 세습체제에 대한 군부의 반발과 이에 대한 척결은 북한 당-군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후계자 내정 이후 수령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에 부심하였으나 최소한 1970년대 후반까지는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였고 무리한 유일지배체제 확립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수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빨치산들의 반발에 대한 무자비한 척결은 군의 자의적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건 이후 군으로 부터 김정일 세습체제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소한 소극적 지지라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북한의 당-군관계는 철저한 당우위에 입각한 「以黨令軍」 체제가 확립되었다.

3. 政治改革과 黨·軍關係 變化 展望

중국의 최고 실권자 鄧小平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중국 지도부내에서 鄧小平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한 논의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도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 구축문제에 직

79) 자세한 내용은 「北韓總覽」(1983년판), pp. 299~01 참조

면해 있으며, 언제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을 정식으로 승계할 지가 대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거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투쟁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 바, 향후 중·북한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를 분석·전망하기로 한다.

가. 中 國

(1) 政治改革과 軍의 役割 變化

198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개혁·개방에 유리한 대내환경 조성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부분적으로 단행해 왔다. 중국은 기존의 통치이념으로 간주되어 왔던 마르크스·레닌주의-毛澤東사상이 경제건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법제 정비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⁸⁰⁾ 그러나 중국의 정치개혁은 당·정기구 개편과 행정관리 체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서구식 다당제나 의회제도 등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와 자유화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軍事改革도 이와 같은 정치개혁의 테두리내에서 추진되어 왔다. 중국이 군사개혁을 추진하게 된 주요 목적은

80) 중국의 정치개혁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는 申相振,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31~42 참조.

군을 경제개혁·개방정책의 지원세력이 되게 하고, 鄧小平 사후 사회주의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협력하도록 하려는데 있다.⁸¹⁾ 따라서 중국의 군사개혁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당군의 국가군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군사개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군관계의 制度改善 문제이다. 중국은 건국이래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작용하여 온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를 확고히 유지함으로써 정치안정을 기하여 왔다. 또한 중국은 정치적 변혁기에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군부를 동원하여 왔으며, 이는 결국 정치에 대한 군부의 과도한 참여를 유도하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군의 정치개입은 중국군의 전력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안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1983년이래 黨中央軍事委員會와는 별도로 國家中央軍事委員會를 설립하여 군을 종전의 당군에서 국가의 정규군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이와 관련, 중국은 최근에도 병역제도와 군인사제도의 제도화를 위해 「병역법」과 「군관복무조례」를 제정·개정하는 등 「依法治軍」(법에 의한 군사관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⁸²⁾

81) 이와 관련, 중국은 군대가 「保駕護航」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人民日報」, 1993. 8. 1.

82) 「文匯報」(香港), 1994. 10. 5.

중국은 군 인사개편과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鄧小平은 1992년 14차 당대회 직후 군부내 파벌을 조장함으로써 군을 사조직화 하였던 楊尙昆과 楊白水을 제거하고, 젊고 유능한 직업군인을 군 요직에 등용하여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군부의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⁸³⁾ 또한 중국은 군 병력 감축과 군구 편제 개편 및 훈련과 기율 강화를 통해서 군의 정예화와 전투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⁸⁴⁾

이러한 중국의 군사개혁 조치들은 군의 국가화·비정치화·중립화를 통해 중국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군 본연의 전투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졌다. 중국은 군대내 인치에 의한 파벌조성 등으로 인한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鄧小平 후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중국군 지도부내 혁명세대들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개혁·개방이후 군의 기율과 당성이 약화됨으로써 당에 의한 군 통제원칙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바,⁸⁵⁾ 중국은 군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과 군의 기층 당조직 건설을 강화함으로

83) "The Fourteenth Party Congress In Session," *China News Analysis*, no. 1471 (November 1, 1992), pp. 8~11; Patrick E. Tyler, "Beijing's 2 Enduring Officer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5, 1994.

84) 신상진·전동진,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23~31.

85) 遐齡, "後鄧時代共軍與黨的關係," 「中國大陸」, 第27卷 第5期 (1994. 5), pp. 20-23; 冷眸, 앞의글, pp. 6~9.

써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계속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요컨대,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공산당의 권위와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바, 향후 鄧小平 사후 군부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의 권력승계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군은 1980년대 이래 군사개혁 조치로 인하여 과거의 당군에서 국가군으로의 변모를 시도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공산당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군부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정부하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승계 과정에서 중국 군부는 여전히 당의 명령과 지휘를 추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⁸⁶⁾

(2) 鄧小平 사후 軍의 정치개입 가능성

1978년 이래 중국의 최고 정책결정자 역할을 수행해 온 鄧小平의 사망은 향후 중국정치에 있어서 1976년 毛澤東 사망이 중국정치에 미친 변화 만큼이나 심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아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人治社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미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당의 지침으로 확정된 바와 같이, 鄧小平 사후 단기적으로 중국에서는 江澤民을 중심으

86) Ellis Joffe, "Expect China's Far-flung Military to Remain Loyal to The Cente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1, 1993.

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鄧小平 사후 중국은 대내적으로 지방분권화 문제,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에 따른 소외계층의 불만, 인플레이 및 소수민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인권문제와 시장개방문제 등과 관련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鄧小平 사후 중국이 직면하게 될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단결 필요성을 갖도록 할 것이다. 鄧小平 이후의 중국 지도부는 당내 권력투쟁이 전개될 경우 공산당지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단기간내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간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특정 정치세력이 군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⁸⁷⁾ 그러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집단지도체제하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정치군인이라기 보다는 직업군인인 혁명이후 세대 군 지도자들은 혁명세대 군 지도자에 비해 공산당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

87) David Bachman, "The Limits on Leadership in China," *Asian Survey*, vol. 32, no. 11 (November 1992), pp. 1501~03; David Shambaugh, "China's Fragile Future," *American Studies of Contemporary China*, vol. 11, no. 3 (Fall 1994), p. 42; Ellis Joffe, "The Chinese Army: Professional but Accustomed to a Central Rol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14, 1994.

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할 경우에도, 중국 군부가 당 중앙과의 협력하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장악을 위해 무장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江澤民의 권력기반의 취약성과 군부의 정치개입 문제 등으로 鄧小平 사후 중·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지도부간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江澤民은 현재 당총서기,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정·군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이다. 江澤民은 1992년 10월 14차 당대회 이후 총정치부, 총참모부, 총후군부 등 3대 총부(1992. 10) 및 7대 군구의 주요 지휘관을 교체(1992. 11-12)하였으며, 최근에도 대규모 상장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군부대 방문을 통해 군부내 입지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江澤民은 1993년 3월 제8기 전인대 직후 당중앙 군사위원 4명중 遲浩田을 제외한 3명을 자파로 교체한 바 있고, 1994년에 들어서도 曹雙明 공군 총사령관과 楊德中 북경방어 사령관 등을 江澤民의 심복들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江澤民은 鄧小平 사후 정국 향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당·정·군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도력 취약성 문제를 극복하여 최고 지도자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江澤民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정치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江澤民은 鄧小平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鄧小平이 사망할 경우 그는 정적들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華國鋒이 毛澤東이 안배한 정치 후계자 였으나, 후계자로 지명된 후 毛澤東이 죽자 華國鋒이 권력투쟁에서 실각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그러하다. 江澤民은 또한 上海市長이라는 성급 간부에서 급격히 승진하여 당 총서기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지도부내에 자신의 지지세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江澤民이 대내외 문제를 江澤民이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적들로부터 도전을 받게될 것이다.⁸⁸⁾ 아울러 江澤民은 최근 군부내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군부내에는 여전히 楊尙昆과 楊白水 등을 추종하는 세력이 상당 부분 남아있으며, 현재 군부실세로 부상하고 있는 王瑞林이 江澤民의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으로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군부가 과연 정치문제에 어떠한 방향으로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江澤民이 군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과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중국 지도자들의 신념을 감안 할 때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과거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 군부가 자체적으로 중국내 정치문제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중국

88) 향후 중국에서 개방의 부작용에 따른 사회혼란, 경제지역주의, 미국의 대중압력에 대한 江澤民의 부적절한 대응 및 정책실패가 나타날 경우 정치계파간 파벌대립이 일어나고 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에서 군부는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군부를 정치문제에 개입시켜 왔다. 마찬가지로 鄧小平 사후 江澤民의 통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에서 楊尙昆과 楊白氷 또는 王瑞林 등과 같은 정적들이 군을 동원하여 江澤民을 제거함으로써 공산당의 통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鄧小平 사후 약 4-5년 이내에 중국에서는 지도부간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세력이 지도부간 권력투쟁에서 승리할 것인지는 군부의 지지를 누가 확보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나. 北 韓

(1) 金正日體制의 軍事政策 展望

군출신이 아니었던 김정일은 당권강화를 통해 군을 통제함으로써 후계체제를 합리화하려 하였다. 그것은 당의 유일지도체계 확립정책으로 나타났는 바, 1974년의 「유일사상체계 확립10대원칙」 발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원칙」의 목적은 수령과 수령후계자에 대한 절대충성 확보에 있었다.⁸⁹⁾ 김정일은 비록 빨치산의 지지에 의해 후계자로 책봉되었으나 군의 무장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었을 것

89) 「10대원칙」의 자세한 내용은 김정일, “전당과 온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4.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91~124.

이다.

김정일은 2가지 이유에서 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방대한 규모의 군을 장악하지 않고는 원만한 후계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이었을 것이다. 둘째, 군의 적극적 지지를 통해 후계자로 옹립된 김정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군에 대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선 김정일은 군장악을 위해 군에 대해 강력히 統制하였다. 1973년 9월 김정일이 당비서가 된 이래로 그는 일련의 숙청을 감행함으로써 군부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 자신이 군사관련 최고지위를 보유하는 정책으로 표출되었다.⁹⁰⁾

다음으로 김정일은 군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軍優待政策을 실시하였다. 즉 김정일은 전술한 바와 같이 승진, 특혜 등을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결국 김정일은 현재 김일성의 '유훈' 관철을 정책적 기조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계지명과정에서 맺은 군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군에 대한 예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편으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강조와 통제조직을 통한 감시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90) 김정일은 자신이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과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1980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990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1년 인민군최고사령관, 1992년 공화국 원수,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2) 金正日 體制下的 黨·軍關係 展望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군부가 갖는 主觀的 要素인 意思와 客觀的 要素인 狀況으로서의 기회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없고 기회도 없는 경우에는 군부의 정치개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의사와 기회가 모두 존재할 때 군부의 정치개입은 발생한다. 셋째, 의사는 있으나 기회가 없을 때 군부개입은 실패한다. 넷째, 기회는 있지만 의사가 없는 경우는 군이 개입, 질서 회복후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는 것이다. 네가지 경우에서 고찰할 수 있는 점은 군이 정치에 개입할 意思 保有 與否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⁹¹⁾ 물론 이 개입 의사의 발동여부는 軍介入의 歷史的 傳統과 軍利益의 合致與否가 결정할 것이다.⁹²⁾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국가 건설 초기부터 군이 깊숙히 개입하였던 역사전통이 있었고 그것은 정치개입이 가장 큰 군의 이익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향후 김정일 정권이 군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정책을 구사하였을 때 군이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당이나 인민이 군부이익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은 당

91) 申命淳, 「第三世界政治論」(서울: 法文社, 1987), p. 280.

92) 이 경우 군은 군의 이익은 국가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Eric A. Nordlinger, *Soldiers in Politic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7), p. 65.

을 파괴하고 직접통치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첫째, 당이나 국가가 급격한 개방·정책을 실시, 군의 존재이유가 약화되게 되었을 때 군은 정치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둘째, 경제난으로 인해 인민적 수준의 봉기가 발생했을 경우 체제유지를 위해 군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정일체제하의 당·군관계 전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군의 당과 김정일에 대한 태도가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군은 김정일로의 후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김정일로의 후계내정 직후인 1975년 당 창건 30주년을 기념하는 글에서 오진우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뜻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여 당중앙(=김정일:필자 주)이 제기하는 모든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며 최후까지 관철하고 당의 혁명적인 지도에 반대되는 어떠한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타협없는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⁹³⁾고 말하여 군이 당중앙인 김정일에게 충성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김일성 사후 100일기념 중앙추모회(1994.10.16)에서 인민군총참모장 최광은 “절세의 위인이시며 천하제일 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우리 모두의 운명의 기둥이시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십니다. 우리인민군대는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치고 정세가 어떻게 변한다하여도 경

93) 오진우, “우리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인 당이다,” 「군로자」, 1975.10월호.

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데 대한 아버지 수령님의 유훈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며...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인 우리인민군대의 최대의 사명은 총대로 우리당과 혁명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것입니다”⁹⁴⁾라고 말하여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맹세는 적어도 김정일이 사회주의체제고수 및 이의 고수를 위한 군역할 보장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군의 위상만 제고된다면 북한군은 수령의 군대,⁹⁵⁾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 김정일체제를 지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요한 사실은 김정일 자신이 당의 최고책임자이면서 군의 최고책임자란 점에서 군이익을 급속히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당-군관계가 급격히 갈등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김정일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급속히 도입, 인민의 사상일탈이 심화됨으로써 체제유지 및 군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때 군은 정치에

94) 「중앙방송」, 1994.10.16.

95) 북한군이 ‘수령의 군대’로 불리우기 시작한 것은 1980년 4월 25일 인민군창건 기념일에 군총참모장 오극렬이 “김일성동지와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수령님의 군대, 조선로동당의 군대로서의 우리인민군대의 생명이며 우리의 혁명무력이 자기본성을 지키고 본분을 다하기 위한 근본정표입니다”라고 말한 때부터였다. 「로동신문」, 1980.4.25.

직접 개입할 것이다. 이 때 군개입 유형은 군사정권에 의한 민간인들의 박탈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⁹⁶⁾ 즉 군은 노동당과 정부를 직접 관장하고 그와 관련된 헌법을 개정, 사회주의적 군사적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96) 군사정권에 있어서 군의 민간인과의 연합형태에 대해서는 김영명, 「제3 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경제」(서울: 한울, 1986), p. 157 참조.

第Ⅳ章 結 論

本 研究는 중국과 북한의 黨·軍關係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의 변화와 관련 군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중국과 북한의 黨·軍관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類似性을 보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과 북한에 있어서 공산당과 군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군은 공산당의 통치를 옹호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중국과 북한에서 군부는 「당이 군을 지휘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게 당의 지휘와 통제하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중국과 북한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부, 당위원회 등 당에 의한 군 통제 기구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군 동태에 대한 보고체제도 다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북한에서 군부가 직접 당권에 도전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과 북한 군부의 정치개입은 군부 스스로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지도부의 결정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受動的으로 動員됨으로써 가능하였다. 과거 중국과 북한에서 일어난 군부가 개입된 정치적 충돌은 당과 군간의 충돌이었다기 보다는 당내 서로 다른 정치세력간의 충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9년 廬山會議시 당 지도자 毛澤東과 군

지도자 彭德懷간의 정책대립의 경우에서 처럼 특정 군부 지도자의 불만 표출이 문제가 되어 군부가 숙청되거나 당의 지도를 받은 경우는 있었다. 또한 중국과 북한군의 정치개입은 정치적 안정기 보다는 권력(승계)투쟁시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치적 변혁기에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셋째, 중국과 북한의 경우 군부 최고 지도자가 당직을 겸직하게 함으로써 당·군간 마찰이 야기될 소지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지도자의 당직 겸직은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국가 건립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강력한 물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부를 당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하였다.

넷째, 중국과 북한에서 군부는 당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상당한 特惠와 施惠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북한의 최고 군지도자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되어 있고, 군사 부문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군부는 당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相異한 면을 보이기도 했다. 첫째, 중국의 당·군관계는 철저하게 당 우위에 입각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에 의해 군이 통제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군대는 김일성 개인의 군대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에서도 군

부가 철저하게 당의 통제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毛澤東과 鄧小平의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해 가능하였지만, 중국 군부는 1920년대 이래 군벌정치적 전통으로 인하여 지도자 개인의 사병이라기 보다는 당군의 성격이 강하였다.

둘째, 중국에서의 당·군관계는 地方分權化 추세와 관련하여 지방군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군은 철저하게 중앙당과 김정일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보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군이 중앙당과 집권자의 명령에 불복하게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당이 군과의 사전 협의없이 군의 이익에 반대되는 정책노선을 채택하지 않는한 군이 스스로 무장력을 동원하여 당권을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에서 나타나게 될 군의 정치개입은 당 지도부간 노선투쟁이나 권력투쟁이 전개될 경우 또는 인민봉기 발생시 사회주의체제 유지 명목하에 군이 동원되는 양태를 띠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 金甲喆. 「北韓의 政治이데올로기 分析」. 서울: 書香閣, 1977.
- _____. 「北韓學概論」. 서울: 文佑社, 1990.
- 金達中·스칼라피노 共編. 「아시아共産主義의 持續과 變化—中國·北韓·베트남—」. 서울: 法文社, 1989.
- 김영명. 「제3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경제」. 서울: 한울, 1986.
- 박갑동 지음, 구윤서 옮김. 「한국전쟁과 김일성」. 서울: 바람과 물결, 1992.
- 북한연구소. 「北韓總覽」.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中國政治經濟事典」. 서울: 민음사, 1990.
- 申命淳. 「第三世界政治論」. 서울: 法文社, 1987.
- 申相振·全東震.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申相振.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와 동북아질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안병준 등. 「中國의 政治體制와 改革」. 서울: 법문사, 1992.
-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서울: 嘉南社, 1984.
- 李恒九. 「北韓의 現實」. 서울: 新太陽社, 1988.

- 林 隱. 「金日成正傳」. 서울: 沃村文化社, 1989.
- 全賢俊. 「金正日 리더십 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 _____ 등. 「북한의 권력엘리트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통일원. 「통일백서(1993)」.
- 黃炳茂. 「新中國軍事論」. 서울: 法文社, 1992.
- 鄧小平. 「鄧小平文選, 1975~1982年」. 北京: 人民出版社, 1983.
- 薄一波. 「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 康銘淑. 「四人幫事件之後」. 臺北: 時報文化出版公司, 1978.
-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 編. 「毛澤東哲學思想概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3.
- 汪學文. 「中共文化大革命史論」. 臺北: 國際關係研究中心, 1989.
- 宇野重昭. 「中國共產黨史」. 서울: 일월서각, 1984.
- 中國人民解放軍政治學院黨史教研室. 「中共黨史主要事件簡介」.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2.
- 中華人民共和國資料手冊編輯委員會 編. 「中華人民共和國資料手冊, 1949-1985」.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86.
- 何沁 等 編. 「中共黨史講義」.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6.
- 胡繩 主編. 「中國共產黨的七十年」.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1.

Cheng, Hsiao-shih. *Party-Military Relations in the PRC and Taiwan*. Boulder: Westview Press, 1990.

Domes, Jurgen.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PRC: A Time of Transi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5.

Dreyer, June Teufel. *Chinese Defence and Foreign Policy*. New York: Paragon House, 1989.

Duverger, Maurice. *Political Party*. Babara and Robert North, trans. London: Methuen & Co. Ltd, 1978.

Finer, Samuel E. *The Man on Horesback: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 2nd ed. Baltimore: Penguin Books, 1975.

George, Alexander. *The Chinese Communist Army in Action: The Korean War and Its Afterma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Herspring, Dale ed.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Systems*. Boulder: Westview Press, 1978.

Joffe, Ellis. *The Chinese Army After MAO*.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Kolkowicz, Roman.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Lee, Suck-ho.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 and Unification of Korea, 1989.
- Lin, Zhiling and Thomas W. Robinson, ed. *The Chinese and Their Future*. Washington, D.C.: The AEI Press, 1994.
- Nelsen, Harvey W. *The Chinese Military System: An Organizational System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1.
- Nordlinger, Eric A. *Soldiers in Politic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7.
- Sartory, Giovanni.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of Analysi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Suh Dae Sook. *Kim Il Su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Thornton, Richard C. *China: A Political History, 1917-1980*.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2.
- Wang, James C.F.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An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0.
- Whitson, William ed. *The Military and Political Power in China in the 1970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2.

2. 논문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6」.

_____.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

김정일. “전당과 온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 4. 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인민군대를 무적의 대오로 더욱 강화하자(1985.4. 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金鎮轍. “北韓의 黨·軍關係에 대한 研究.” 「安保研究」 第19號. 1990.

양호민. “3대혁명의 원류와 전개.” 「북한사회의 재인식 1」. 서울: 한울, 1987.

유광진. “북한의 개방정책 결정에 있어서 당·정·군의 역할.” 「國防學術論叢」. 제8집. 1994.

俞雨霖. “共軍與中共政治: 歷史的角度.” 「東亞季刊」. 第18卷 第2期. 1986年 10月.

李基遠. “北傀軍 그 眞相의 實體: 軍事思想과 黨軍으로서의 性格.” 「北韓」. 1979.4.

이기택. “북한의 군사정책과 정치.” 「북한군사정책론」.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83.
- 이정수. “북한의 당·군관계.” 「北韓研究」. 1992년 가을호.
-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김일평 등.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1.
- 冷陴. “三軍總部表態維護江權威,江澤民全力整頓槍桿子.” 「廣角鏡」. 1994年 11月號.
- 毛澤東. “戰爭與戰略問題.” 「毛澤東選集」. 第2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6.
- 王玲玲. “中共十四大人事之分析.”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1期. 1993. 1.
- 李達. “중공에 있어서 당·군관계.” 「共產圈論叢」. 창간호 1988.
- Bachman, David. “The Limits on Leadership in China.” *Asian Survey*. vol. 32, no. 11. November 1992.
- Joffe, Ellis. “Expect China’s Far-flung Military to Remain Loyal to The Cente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1, 1993.
- _____. “The Chinese Army: Professional but Accustomed to a Central Rol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14, 1994.
- Perlmutter, Amos and William M. LeoGrande.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American Politi-*

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 December 1982.

Robinson, Thomas W. "The Wuhan Incident: Local Strife and Provincial Rebellion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Quarterly*, no. 47. July-September 1971.

Shambaugh, David. "China's Fragile Future." *American Studies of Contemporary China*. vol. 11, no. 3. Fall 1994.

"The Fourteenth Party Congress In Session." *China News Analysis*. no. 1471. November 1, 1992.

Tyler, Patrick E. "Beijing's 2 Enduring Officer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5, 1994.

Yang, Zho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Changing Communist Societies: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24, no. 1. March 1991.

3. 기 타

「중앙방송」.

「근로자」.

「로동신문」.

「光明日報」.

「文匯報」(香港).

「人民日報」.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關稅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與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옐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
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1 貨幣 經濟 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研究報告書 94-2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